

2002 여름 · 6호

두입술

그대 두입술을 열어 함께 말하랴

테마 여자친구



내 가슴 빈 터에 네 침묵을 심는다

김정란

네 망설임이 먼 강물소리처럼 건네왔다
네 참음도
네가 겸손하게
살의 번잡함 쪽으로 돌아서서 모르는 채하는 그리움도

가을 바람 불고 석양녘 천사들이 네 이마에
가만히 올려놓고 가는 투명한 오렌지빛
그림자도

그 그림자를 슬프게 고 숙이고
뒤돌아 서서 만져보는 쓸쓸한 뒷모습도

밤새
네 방 창가에 내 방 창가에
내리는, 내리는, 차가운 투명한 비도

내가 내 가슴 빈 터에
네 침묵을 심는다 한 번, 내 이름으로,
너는 늘 그렇게 내게 있다
세계의 끝에서 서서
아득히 미처 다 마치지 못한 말로

네게 시간을 줘야 한다고 나는
말하고 쓴다, 내 가슴 빈 터에

세계가 기웃, 들여다보고 제 갈 길로 가는
작은, 후미진 구석

그곳에서 기다림을 완성하려고
지금, 여기에서, 네 망설임을, 침묵을, 거기에 심는다,
한 번 더, 네 이름으로,

언제든 온전히 말을 거두리라

너의 이름으로, 네가 된 나의 이름으로

002 intro

- 002 두입술 낙서판
- 004 꾸뻏이의 하루 / 팽



006 I. 고립

- 009 대학에서 '여성으로' 살아남기 / 담
- 015 '오빠' 이야기 / 이오람
- 021 생각해 '준다'고? 우릴 정말 '생각해' / female
- 025 두 마리 토끼? / 데카
- 028 그녀의 배신? / 더엄
- 031 연애 이야기, 너무도 지루한, 너무도 특이한 / BESA
- 035 사랑도 우정도, 문제는 권력! / 나윤경
- 041 보이지 않는 끈 / 전양숙
- 044 커리어 우먼 스토리 / 하리
- 047 정신차려, 넌 여자야! / 조제
- 051 '꿈'꾸는 소녀 / 이갈
- 053 '예외'라는 함정 / 조이 여울
- 056 회사원 버전의 '자매애' / 이다
- 060 유리감옥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 팽가



066 II. 똑똑똑, 들어가도 될까요?

- 068 함께 나눠 먹자! 달콤쌉싸름한 초콜릿 / 푸름
- 071 무언가를 하자! 여자친구와! 꼭!!! / 뽕
- 076 나는 아무렇게나 손을 내밀지 않겠다 / 팽가
- 081 페미니스트들의 수줍음, 인색함, 그리고 권력화에 대
하여 / 김현미
- 087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 여랑
- 089 여성주의자가 싫다고 말한 그녀에게 / 혜진
- 092 내 여자친구는 미운 7살? / 이갈
- 095 구두상자에 담긴 이야기 / 팽
- 097 '여자친구' 외도? '논다? 여자친구' 링' 논다!! / 이갈
- 099 두입술 좌담 짜잔~





1년 전, 우리는 각자 힘들었다. 불투명한 미래, 잘 풀리지 않는 일들, 인간 관계, 여성주의에 대해 정리되지 않는 고민들까지. 스무 살 남짓한 여자애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한 둘이겠는가. 그런 우리가 각자의 지친 몸을 이끌고 '여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 기획이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 바꿀지 알 수 없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1년 전보다 훨씬 행복해졌고, 훨씬 풍요로워졌다. 사실 과정 자체는 그다지 쉽지 않았다. 생각은 복잡했고,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들은 의외로 많지 않았다. 진행은 더웠고, 우리는 조금씩 지쳐갔다.

지쳐서 함께 마시던 술 한잔이 우리 기획을 완성시켰다면 과장처럼 들릴까? 우리는 지쳐가던 서로에게 손을 내밀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너무도 진부한 말이지만,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를 걱정하고 위로하며 말을 걸었을 때, '여자친구'라는 주제의 기획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 항상 가장 든든한 지지자로, 나를 이해해주며 가장 솔직하게 충고해줄 수 있는 여자친구를 만든 것이다.

우리는 서로 손잡음으로써 스스로 단단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음을 절실하게 느꼈다. 때로는 짹짹 웃으며, 때로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를 다그치며, 때로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한편 우리는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글을 써주고 충고해주고 격려해준 '여성'들의 자매애에 감동하며, 우리의 손잡기가 유효한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얻기도 했다.

나만이 느끼는 외로움이라고 느끼던 것들이 사실은 남성의 경험이 중심이 되는 사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서 뒹뒹이 흩어진 여성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대한 아쉬움.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함께' 잘 살아갈 길을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 희망을 말하면서 기획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행복한 경험을 세상에 내놓으려 한다. '여성'으로서 우리가 강요당했던 고립에서 벗어나면 이토록 즐거울 수 있다고, 그러니 함께 하자고 말하기 위해 우리는 '두입술'을 연다.

두입술을 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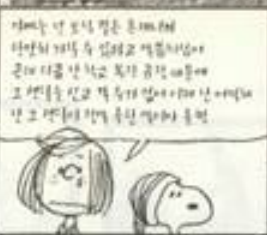
2002 여름 · 6호

두입술

그대 두입술을 열어 함께 말하라

"그대들의 입술을 열어라. 그러나 그것들을 단순히 그냥 열지는 말아라. 우리, 다시 말해 너/나는 열려 있지도 닫혀 있지도 않다. 우리의 입술 즉 너의 입술과 나의 입술 사이에서는 몇 개의 목소리들, 몇 가지의 말하는 방식들이 이리저리 끊임없이 우려퍼진다... 우리의 세계 안에 있으면서 밖을 향해 있고, 밖에 있으면서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통로, 우리들 사이의 통로는 무한하다. 끝이 없는. 어떠한 매듭도 고리도 어떠한 입도 우리의 소통을 멈출 수 없다. 우리들 사이에 있는 집은 벽이 없다..."

연세대학교 『두입술』 편집위원회



두입술 낙서판

눈물 닦아줄 친구가 있으세요?
혹은 너무나도 알미운 친구는요?
난 이런 친구가 좋더라, 싫더라.
이럴 때 여자친구(여자선호배)가 필요하더라.
어떤 내용이든 좋아요. 여자친구에 대해
'수다' 좀 털어 보자구요...

묘한 동질감과 이질감을 자아내는...

앞에선 생글거리며 챙기면서
뒤로 욕하는 애

내가 자신과만 친해야 한다고 우기는 타입.
난 네 애인이 아니란 말이다 ::

눈빛만 봐도 통한다는 얘기를
믿게 해준 친구. 사랑한당~^^

제게는 어느날 미칠 듯 임들과 바빠서
우울함이 극치를 달릴 때 불췌 찾아가면
어느때든 그냥 말없이 밥 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임들다는 말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싫없는 이야기에 모든게 이해되는
그런 친구요. 가끔은 남자친구모단
이런 친구가 더 소중한단 걸 느낍니다.

CC로 다니다가 깨지는 경우에는
여자친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자친구랑 놀고 싶어도
남친이 안 놔줄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투가 넘 심해요.

제일 친한 친구가
남친 생기더니 저한테 소홀해요.
동성친구도 신경써줘야
안 떠나는 것 모르나요.

서로 질투하지 않기!!

남자친구 뺏다마 함께...ㅋㅋ

난 의리파가 조아! (조폭 배구)

1학년 때부터 CC여서
지금 깨지고 나니까
4학년 땀 친구도 없구.

내 친구들은 다 너무나너무 좋고 착한데...
내가 남자 땀에 혹 소홀히 해도 언제나 변함없고
항상 나를 지지해줌.
여자친구들 땀에 너무나너무 행복.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할 땐
시름 등하러니
시험기간엔 엄청 친한친구...

제발 '의리' 좀 가지자
(←이런면은 남자들좀 닮아보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보다
더 어려운 경우도 많다.
더 쉽게 토라지고 오해하고...

친구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 전화를 걸 사람이 없네...:::
눈물나오로.

난 이런 스누피같은 친구 있다.
나도 그런 친구가 되려고 노력한다.
남자인 친구 or 남자친구들도
스누피같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건 관계가 지속될 때뿐이다.
물론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남친들과는
그 관계 유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그 유지에 더 힘이 드는 것 같다.

난 공대인데 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자가 없어서 남자친구(들)이 더 많다.
진지한 여친을 만들고 싶어도
수가 한정되어 있어 만나기가 어렵다.

남자친구 땀에 소홀히 하는 거
진짜 보기 싫다.
필요할 때만 찾는다?!

※ 이 내용들은 중도·학관 등의 화장실 낙서판들에서 모은 것입니다.
글쓴이 모든 어학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주삿이의 하루

뽕 _ il0root2@hanmail.net



등교시간 9시 50분.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얼굴-그렇다. 그녀는 미적이다. 미적이는 주삿

이와 같은 과 친구다. 종합관과 과학관이 별로 멀게 느껴지지 않았던 그 시절에 주삿이와 미적이는 짧은 인사라도 따뜻하게 나누는 친구였다. 같은 수업을 들었던 때에는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느라 쉬는 시간이 훌쩍 가버려곤 했다. 그런데 미적이가 잠시 휴학을 했던 것인지 보이지 않았던 시간 동안 주삿이와 미적이 사이에는 서로의 말이 가 닿지 않는 낮은 담이 생겨버렸나 보다. 주삿이는 인사를 할까 말까 망설이며 바보 같이 주삿주삿 거리를 약 5초 동안 한 뒤 역시 5초 동안 미적거리고 있는 그녀와 그냥 지나쳐 버렸다. 약간 아쉬움이 남는 주삿이. 미적이와 함께 먹었던 청경관 떡볶이와 순대는 정말 맛있었는데... 떡볶이를 너무 좋아했던 우리는 그때 다음에는 신당동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고 약속을 했었던 것 같다...

점심시간 12시 30분

그때 들리는 핸드폰 벨소리. 어, 모르는 번호네? 애연이었다. 애연이는 한때 한 학기 시간표가 주삿이랑 똑같아서 모든 수업을 함께 듣고 공강 시간에는 푸름샘에 가서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 밤새 숙제도 함께 했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친구다. 같이 점심을 먹자고 전화를 했길래, 남자 친구는? 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 버린 주삿이. 애연이가 늘 궁금했었고 길에서 우연히 만나면 언제 한 번 보자~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었는데 전화를 한 애연이에게 남자 친구는 왜 물어봤지? 아무튼 약속을 잡고 주삿이와 애연이는 그녀와 연애 기간 동안 멀어진 시간을 극복하려고 또 마구 주삿거렸다. 그녀는 남자 친구와 헤어진 모양이다. 그랬겠지... 그녀는 남자 친구가 없으면 주삿이에게 연락을 하곤 했던 것 같다. 아니, 사실 그랬는지 아닌지 잘 모르면서 주삿이는 예전에도 그랬을 거라고 단정해 버린다.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도 나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다니... 그녀가 예전에 골라주었던 노란 옷은 여전히 주삿이에게 잘 어울렸다. 주삿이 역시도 그녀에게 어울리는 옷을 골라주고 싶다... 그녀는 하늘색 옷이 잘 어울릴거야. 아니, 파란색이 나을까? 생각한다.

수업시간 2시

평소에는 눈인사도 안하던 뽕이. 오늘따라 괜히 생글거리며 주삿이에게 다가온다. 처음에는 요즘 날씨 참 좋네~ 하더니 동아리는 재미있냐고 물어본다. 주삿이는 오늘은 비가 오는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관심이 기분 나쁘지 않다. 오히려 주삿이는 뽕이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동아리를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미안해진다. 주삿이는 썩~ 웃어 보이고 요즘 잘 지내? 하고 말을 하며 그다지 할 말이 없다는 것에 어색해 하면서 공통의 이야기거리를 찾아본다. 뽕이는 주삿이에게 '사회조직' 과목은 필기 잘 해야 한다던데...하면서 은근히 내 노트를 뒤적인다. 그러더니 내 글씨가 예쁘다며 노트를 빌려달라고 한다. 주삿이는 뽕이가 물어보지도 않은 프린트까지 껌싸게 끼워 주고 나서 생각한다. 뽕이가 웬일 일까? 아, 곧 기말고사구나...

저녁시간 7시

수업이 끝나고 주삿이는 친구와 저녁 약속이 되어 있다. 동아리 친구인 대답이는 주삿이와 절친한 사이. 그녀는 대답한 성격으로 주삿이가 주삿거릴 때마다 곁에서 힘을 주고 말없이 응원해 주는 친구다. 그런데 대답이는 오늘 우울 모드인가 보다. 영 말이 없네... 주삿이는 영화 보러 갈래? 아임 소리~ 내가 쓸게~ 그렇게 우리는 녹색극장으로 향한다. 주삿이는 서운함을 느낀다.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하지...내가 도와줄 수 없을지 몰라도 들어줄 순 있는데... 그러나 사실 주삿이도 요즘 집안 일로 힘들지만 대답이에게 털어놓기는커녕 혼자 공공 거린다. 대답이랑 술이라도 한 잔 하면서 밤새도록 이야기가 하고 싶어진다...



고립

아마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하지만,

집찍한 땅, 닿지 않는 손
우리, 영원히 움푹달푹 할 수 없는 걸까.

사실은 네가 보고 싶은데,
사실은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이 집찍한 땅이 나를 놔주질 않아...



I. 고립

대학에 여성을 許하라
미워도 다시 한 번
물 밖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대학에 여성을 許하라

대학에서 '여성으로' 살아남기
'오빠' 이야기
'생각해 준다'고?

:: 대학에 여성을 許하라

대학에서 '여성으로' 살아남기

담 dammy20@hanmail.net

대학이라는 곳은 그 누구에게나 평등한 곳이라는 '신화'가 있다. 그래서 대학이라는 곳에 대해 '남성중심적이다'라는 촌스러운 말로 개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더욱 드는 것이다.

대학문화 배우기

입학 이후 새내기들을 환영해 주는 것은 우선 술자리. 술자리가 대학 생활을 함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는 처음 술자리에 접하는 순간부터 알 수 있으며 그것은 누누이 강조된다. 술자리에서의 역사를 공유했느냐/아니냐 하는 것은 주류와 비주류를 나누어 버리며, 주류는 그들만의-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이야기되는-'역사'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내가 참여하지 못한 술자리를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에게서 느끼는 소외감을 통해 절실하게 알게 된다.

대학에서 조직 내 사람들과의 관계란 것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¹⁾ 친분을 바탕으로 함께 일하며, 함께 일하면서 또한 친분을 쌓아간다. 따라서 친목을 다지는 자리에서의 주류와 실제 조직의 활동 중의 주류가

¹⁾ 동아리나 과에서의 실질적인 활동이 성실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성실한 활동이라는 것은 기본 조건에 불과하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그런 관계맺음을 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인가이다. 단지 친목 관계로 '주류'라는 소모임이 만들어지고, 함께 했다는 즐거운 역사가 소모임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²⁾

대학에서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는 주 종목인 술자리는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누구나 똑같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집에 늦게 들어가도 되는 사람에게, 이전부터 술을 놀이문화에 포함시켜온 이들에게, 그리고 술김에 좀더 '오버'할 수 있는 이들에게 더 열려 있는 술자리이기 때문이다. 지칠게 표현하자면, 술은 남성들의 문화이며,³⁾ 술 문화는 남성적이다.⁴⁾ 여자들끼리 술을 마시는 것은 재미없게 보이며, 여럿이 모여 술을 마실 때는 "어이!어이!"를 한 번이라도 질러주고, 과격할 행동에 해야 즐거운 것 같다. 여성들에게 술문화란 기존 남성의 문화에 참여하도록 허락되어진 부분인 것이다. 결국 대학문화에서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술문화란 남성중심적인 관계 맺기에(만) 지대한 공헌을 하며, 이를 통해 누가 주류가 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또한 대학문화의 남성성을 드러내 준다.

다른 놀이문화를 통해서도 그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는 남성들은⁵⁾ 조직의 중심에서 여러 가지 굴곡굴곡한 일을 하고, 여성들은 조직의 잔일들을 떠맡게 된다. 남성과 여성이 하는 일은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티가 나지 않고, 손만 많이 가는 일이 바로 그녀들의 몫이라. 또는 같은 일을 하여도 가지고 있는 관계망이 튼튼하지 않은 그녀들은 합당하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기에 더욱 열심히 일하는 그녀들이지만, 불합리하게도 애초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일이었던 것이다.

관계맺기와 소외

술은 관계맺기의 한 예에 불과하지만, 이는 여성이 조직의 중심과 관계맺기를



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조직의 중심에 있는 이는 (남자)선배이며, 그와 관계를 맺고 주류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경험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관계맺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위 '남자 같은 여자'가 되어야 그들로부터 '여자 같지 않다'라는 말을 들으며 그들과 비슷한 위치에 놓인다.

다른 식의 관계맺음도 가능하지만, '여성으로서'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주류가 될 수 없다. 예쁜 여후배가 되거나, 조직의 일을 뒤에서 챙기는 엄마 역할을 하는 것은 주류의 위치가 아니다. 예쁜 여후배는 다음해에 또 입학하며, '오빠'의 관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엄마의 위치란 집에서의 엄마가 그렇듯 뒤에 있는 존재이다.

결국 여성들이 조직 내에서 그나마 주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남성성을 획득할 때이다. 대학문화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능력으로 여겨지는 것은 흔히 남성성이라 불리는 성질이다. 조직 내의 인물들과 관계맺음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남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이고, 그 관계맺음의 수단이 능력으로 평

가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남성이 원하는 여성성을 부각시키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에도 그녀들은 주류가 될 수 없다. '여성'에 적 코드에 맞는 여성성을 가진 여성은 '연애'의 대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그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조직에서 소외된다.

주류로 가는 길?

- 나에 대한 부정 그리고 고립

입학하던 때만 해도 활기찼던 나와 여자 동기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운이 없어졌으며, 내 남자 동기들은 동기보다 형들과 더 친해지면서 우리와 멀어졌다. 1학년 때는 되도록 많은 술자리에 가기 위해 집마다 온갖 거짓말을 하고 술을 부어라 마시던 내 여자동기들은 2학년쯤에는 자신의 대학생활 부적응에 괴로워하며 조용히 모여 앉아 술을 마셨다. 3학년쯤에는 제대한 복학생과 남자 동기, 남자 후배들이 자기들끼리만 무리 짓는 것에 우리들은 소외되었다고 괴로워하였으나, 그들은 이제 과에서 조용히 뒷일을 하는 엄마 같은 모습을 보인다.

입학 이후로 꾸준히 주류가 무엇인지, 조직 내에서 어떤 것이 지향되어야 할 모습인지를 보아왔다. 그것은 여성에게 있어 20여년 동안 습득해온 것과 너무나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녀들은 지향되어

2) 물론 추억을 함께 나누는 사람끼리 더욱 친해지는 게야 당연하지만 그런 추억이라는 것이 '어쩌다'가 조직 내의 소모임에서만 존재한다면 다른 문제가 되어버린다. 그 소모임의 이름은 '주류'이며 공식적인 모임이다. 사실상 그 소모임은 처음부터 주류이다. 어떤 모임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3) 뉴스에서는 해마다 '여성' 음주가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별 걱정을 다한다. 술 먹고 길에 날부러져 있는 게 이 누가 해도 추한 일이지만, 여성의 경우 더 추하고 문란하다는 이미지를 버린다. 남성들에게 술은 남만이지만, 여성들에게 술은 방종이다.

4) 술 문화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현재 조직의 문화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집단적으로 벌어지는 술만에서의 문화를 말한다.

5) 남성들에게는 놀이문화가 비교적 풍부하다. 당구, PC방에서 방성 게임 등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그들은 정정 '주류'라는 소모임의 세를 키워갈 수 있다. 하지만 놀이문화라는 것은 모여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도 기억하자.



야 살아남을 수 있는 모습과 자신의 실제 모습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을 일으킨다. 자신을 부정해야 하는 억지스런 과정에서 괴로워하며, 결국 주류에 편입하지 못하는 자신을 두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존감이 낮아지기까지 하게 된다. 조직 내에서 소외되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그렇게 소외되거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조직이 원하는 여성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물론 처음부터 남성중심의 문화에 잘 적응한 소위 '남자 같은 여성'이나 '엄마 같은 여성'들이 있지만, 앞서 말한 바 '여성으로서' 조직 내에서 주류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것은 마치 주류에 성공적으로 편입한 것처럼 보이는 남자 같은 '여성'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남자 같은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남성들과 같은 위치에 놓이는 것에 한계

를 지으며, 스스로 여성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 역시 그녀 자신으로서 온전하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나는 처음 배운 술문화의 재미에 빠져있었다. '이것이 대학문화구나'라고 신기해했다. (남자)선배들이 데리고 가는 술자리라는 것은 정말 재미있는 것이었다. 나는 점차 여자친구들끼리 모이는 상황이 되면 그것을 재미없어하고, 여대를 다니는 고등학교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 재미없는 학교 생활을 한다고 안쓰러워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술문화에 잘 적응했고, 그것이 얼마나 신나는 것인지를 과시하려고까지 하였다.

나 역시 중·고등학교 시절을 여자친구들과 지냈으며, 우리들의 놀이 문화가 있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 더 편안한 즐거움이 있었다. 그것은 나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런 여자친구들과의 놀이를 내가 재미있는 것으로 여기게 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남자들처럼 놀고, 그들처럼 되고 싶었다. 술을 잘 마시고, 잘 놀 줄 알며, 응원도 큰 소리로 할 수 있는 그들은 얼마나 멋진가. 그들의 대학생활은 얼마나 멋진가. 하지만 나는 그 반대급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여성성을 무시했다. 물론 새로 알게 된 문화를 즐길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으며, 남성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여성이라는 나를 부정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여성들은 주류의 위치에 서기 위해 자신에 대한 부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이라도 남성성에 가까워지기 위해 애쓴다. '오빠'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애쓰고,⁶⁾ '오빠'처럼 되고 싶어하며, 보통의 여자들과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그녀들은 여자친구들과 멀어지거나 피상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 보다 우월하게 보이는 남성성의 추구를 통해 여성성의 편함을 내면화한 그녀들에게 여성은 매력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는 개인적으로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이이더라도 조직 안에서는 다른 관계를 맺게 된다. 조직 내에서 '보통 여자들과 다른 여자'가 되어야 하는 그녀들은 자신의 여자친구들과 구분되자 하며 그들과 경쟁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하는 것은 자신의 고립뿐이다. '여자 같지 않은 여자'가 될 수 없는 나는 '여성'이다. 여성인 나는 주류가 될 수 없으며, 주류에 가까이 간다 해도 '여성'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없다. 결국 남성성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남는 것은 여성들끼리의 소외와 고립되어 있는 자신이다.

종종 조직에서 소외된 여성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공감할 수 있는 여자친구들끼리 모이기도 한다. 또는 동아리나 과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고학년이 되었을 때야 여자친구들을 찾기 시작한다. 하지만 힘이 없는 그녀들의 모임은 마지막 선택지인 경우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모든 몸부림은 처음부터 그 존재의 이유가 없던 것들이다. 나 자신으로서 살 수 없다면 그것은 나의 삶이 아니지 않은가. 세상에 존재하는 일부 어떤 집단의 문화에 나를 맞추는 이유는 애초부터 없었다.

나를 긍정하기 그리고 여자친구 찾기

자신을 부정하는 과정을 통해서야 주류에 편승할 수 있다면 그 주류는 부정되어야 한다. 여성이 주류에 속할 수 없는 것은 활발하지 못한 성격이나 능력의 탓이 아니다. 활발하지 못한 남자동기도 형들과 친하게 지내며, 여자들끼리 있을 때는 적극적인 그녀가 조직 내에서는 주눅드는 경우들을 보았다. 그리고 능력이란 것은 관계맺음의 능력(남성적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또한

6) 능력이 있고 주류의 위치에 서있는 사람이 조직 내에서 힘을 가지기 마련이다. 사람은 힘을 가진 인물 주위에 자연스레 모인다.



많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어떨까. 굳이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갖기 보다 낮에 차를 마신다든지, 소리 지르지도 않고 음담패설도 없는 술자리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어떨까. 지금 불편하게 서있는 곳에서 그 곳에 맞추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이 편이 훨씬 쉬울지도 모른다. 그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며, 가까

이 있다. 당신 옆에 있는 여자친구들을 돌아보자. 우연히라도 여자친구들끼리 모여 놀아본 경험이 있다면 당신은 그 편 안함을 알 것이다. 없다면 시도해보시라.

언젠가 우연히 여자친구들끼리 술을 마시게 됐을 때 누군가가 “와...우리 이제 연예인 얘기도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며 좋아하던 것이 생각난다. 보통 때의 술자리에서 조용히 있던 이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말수도 많아지며 청말 즐겁게 놀았었다. 그녀들은 동아리 안에서 보던 조용하고 기운 없는 이들이 아니었다.

대화문화라는 이름의 남성중심 문화를 낫설어하고 그것에 맞출 수 없어 힘들어하는 것은 당신뿐이 아니며, 그것은 당신이 부족하기 때문은 더욱 아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억지스런 몸짓을 하기 보다 나

를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나를 인정해주는 친구들을 만나자. (남자)선배를 만나는 것보다 여자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가? 사실상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주류가 돼보겠다고 애쓰는 것이 더욱 힘든 모험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주류라는 것은 뭉쳐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 주류를 만들 수 있다.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여자친구와 함께 말이다. **14**

‘오빠’ 이야기

이오람 (정외0)

남자 친구에게 물었다.

“‘오빠’라는 말 들으면 기분이 어때?”

“좋지, 맘껏허지~”

여동생이 없는 그 친구는 그래서인지 더욱 그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그럼 널 그렇게 부르는 여자한테 어떤 식으로 대하는데?”

“막 돈을 뽐아서라도 뭐든지 사주고 싶달게~, 너도 오빠라고 불러봐, 그럴 너도 이해해 줄게, 킁킁”

‘오빠’라는 말의 위력이 강한 줄은 나도 익히 경험을 해봐서 알았지만 그 친구의 입장-듣는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오빠’라는 단어는 또 다른 색을 띄고 있었다. 내가 지켜줘야 할 것 같은, 무언가를 사줘야 할 것 같은, 다시 말해 위해주고 보호해주어야만 할 것 같은 존재로서의 여성. 내 친구는 이미 그러한 여성을 자기와 동등한 눈높이에 두고 있지 않았다. 어떠한 사람도-물론 내 친구도-자신이 보호해야만 할 수 있는 아이에게 자신의 인생사를 함께 논하거나 진지한 조언을 구하거나 중대한 프로젝트를 맡기지 않는다. 여성은 정치적 발언의 기회도 능력도 없는 아이의 굴레를 스스로 씌우고 있다. ‘친근감’이라는 일생일대의 좌우명과 함께.

Themel_ 힘에 대한 동경과 나를 왜곡시킨 '오빠' 문화

나에겐 오빠가 없다. 어머니의 첫아이였던 오빠가 오래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는 아들을 다시 갖기 위해 지금의 세 딸-언니, 나, 동생-을 갖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머니는 이것이 곧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 하겠는지 더 이상 아들을 갖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었다. 어린 시절, 친한 친구에겐 오빠가 있었고 내가 그 친구와 다투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 오빠가 날 혼낸 후 집에 돌려보내곤 했다. 그것이 서러워 아버지를 불렀고 그 집에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버지는 아주 점잖은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이셨기에 오히려 나의 품행을 꾸짖으시고 그 집에 사과를 하셨다. 친구의 오빠가 너무 미운 동시에,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웠다.

"고추 하나만 달고 나오지"란 말을 밥 먹듯 하시던 어머니, 3시간 넘게 열미를 참아가며 겨우 예산 외할머니 댁을 찾아가 "할머니"하고 신이 나서 뛰어 들어가는 우리를 "왔니?"한 마디와 함께 힐끗 쳐다만 보시던 할머니, 또래의 친척 남자 아이들에게는 내게 보란듯이 나의 2~5배에 달하는 세배 돈을 쥐어주시던 일가 친척들, 예수님은 남자, TV속 정치인들은 모두 남자,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무언

의 세뇌를 시키기 충분했다. '남자는 중요한 존재야, 여자는 힘없고 쓸모 없는 존재야' 이는 나에겐 짚 수 없는 불문율과 같았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선 나에게 정말 거대한 꿈을 심어 주셨고, '넌 선택받은 자녀야'라는 말을 늘 들려주셨는데, 그 거대한 꿈들이란 대통령이나 외교관, 판사 같은, 어린 내가 보기에는 남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대부분이었다. 난 정말 내가 곧 남자가 될 줄 알았다. 실제로 난 어깨도 넓고 힘이 센 편이어서 머리를 자르면 모두들 남자로 보곤 했다. 내가 남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안 이후로-그것을 깨닫는 시기가 남들에 비해 많이 늦었다. 깨닫기보다는 남자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다- 난 나보다 힘이 약한 반 남학생들을 때리고 욕하고(그 때문에 나도 참 많이 맞았지만), 또 그걸 자랑하고 싶어했다. 남자 같은 힘을 얻고 그 힘을 과시함으로써 난 남자 같은 존재가 되어 주위 사람들의 기존의 시선을 전복시켜 버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진주로 전학을 와서 여중에 입학한 후 난 밝은 성격으로 많은 여자 친구들과 남자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난 친구들과 화장이란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남자친구들을 만날 땐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 모두들 흔히 말하는 '문제성이 있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담배와 술은 노는 데 필수품이었

다. 남자친구들은 그들의 학교 선배들과 어울렸고 그 선배들은 너무나 권위적으로 내 남자친구들을 부렸다. 나에게 그들의 선배-그 당시 내가 '오빠'라고 불렀던 이들-의 존재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너무나도 위협적이고 권위 있는 존재로 다가왔다. 주위 친구들의 눈치로 처음으로 그 선배들에게 술을 따라야 했을 때, 난 다방 여자들을 떠올리며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지만 선배들과 친구들이 흡족해 하는 그 분위기에 어느덧 익숙해져 갔다. 그 멋진 선배들이 날 좋아하게 만드는 일, 이것이 나를 비롯한 친구들의 최대 과업이었고, 이를 위해 화장을 하고 예쁜 옷과 악세사리로 치장하고 애교 있는 말쑥씨를 연습하는 등 노력을 쏟으며, 나는 나의 시선을 온통 나 스스로에만 쏟고 있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나의 신데렐라 행태는 심화되어갔다. 이유는 학교 내 친구들과의 미묘한 세력다툼(?) 때문이었다. 실제로 여학교에는 이상하고 유치한 세력관계가 존재한다. 학교에서 힘이 센 친구보다는 소위 잘 나가는 남자들을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 즉 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그 애의 인지도가 결정된다. (물론 '문제야'들 사이에서) 난 그때 이미 학생부 드나들기를 일상으로 하고 학교 안밖에서 사고나 치면 '문제야'였다. 어딜 가셔도 지기 싫어하는 성격 때



문에 다른 반 아이들과 시비도 많이 붙었다. 난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는 남자들을 나의 이름 위에 화려한 옵션으로 달기 위해 친구들로부터 많은 남자 친구들을 소개받고 그들의 선배에게 '오빠, 오빠'하며 술을 따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때 난 '오빠'라는 한마디로 많은 남자들이 무너지는걸 보며 '오빠'라는 단어의 위대함에 실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친해지는 선배들이 많을수록 난 그들이 나의 힘과 지위를 높여준다고 믿었다.

그렇게 아무런 생산성 없이 헛되이 시간을 보내며 2학년의 반이 지났을 무렵,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남자 선배들과의 관계에 치중했고, 이를 선·후배간의 우정으로 정당화했다.

물론 대학 내 한 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해나가는 적극적인 선배와 동기들-대부분 남자-은 분명히 멋진 이들이다. 그들은 그 문화를 자기 것으로 승화시켜 이끌어 나가는 그 문화의 참된 주인공들이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 왜 나는 현존하는 문화만을 바라보고 나 같은 이들을 위한 독자적인 문화를 새로이 형성할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일까? 아직 나는 어리고, 앞으로 경험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더 많기에 Morrie Schwartz에게 현명한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내 말은 스스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
여내라는 뜻이야. 물론 사회의 규칙을 모두 다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야. 예를 들면 나는 벌거벗은 채 돌아다니지도 않고,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는 반드시 멈춘다네. 작은 것들은 순종할 수 있지. 하지만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지 등, 줄기가 큰 것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하네. 다른 사람이-혹은 사회가-우리 대신 그런 사항을 결정하게 내버려둘 순 없지.” (미치 앨봄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서) ■

생각해 ‘준다’고? 우릴 정말 ‘생각해’?

femele(고려대학교)

내가 대학입학에서 ‘인간사범’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생각했던 동아리가 있었다. 그 동아리는 나름대로 평등이랍시고, 여학우들을 노골적으로 따돌리거나 부담스럽게 하는 일은 알아서 하지 않는다. 술자리에서 여학우들은 먼저 가도록 유도하고 고학번 선배들을 만날 때 남학우들끼리 간다. 그들은 그것이 생각해 ‘준다’고 한다.

1학년 때 난 술 좀 먹고 고대문화에 잘 적응하고 선배들이 유쾌해 할 만한 재치도 갖춘 드문 ‘새내기’ 여학우로 인식되었다. 술자리에도 빠지지 않았고, 때로 주도하기도 했으며 각종 엠티에서 만들어진 나와 관련된 톰나는 비화들과 함께 몇 달을 그것으로 우렁치며 어울릴 줄 알았다. 그런 나는 나름대로 돋보이는 여학우라 평가되었고 되도록 술자리나 동아리 행사에서 빠지려하는 다른 여학우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멋진(?) 여학우라고 선배들이 추켜세워 주었다.

물론, 난 그게 되게 자랑스러웠다.

그렇게 한 여학우를 추켜세워 주면서 그 여학우를 남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동아리의 꼬시기 방법인지도 모르고, 겉으로는 집단문화에 적응 못한 멧없는 여학우들로, 동아리 생활 안한다고 평가받는 여학우로 만들고 결국 그렇게 무수한 여학우들을 동아리에서 떠나게 했던 방법인줄 모르고, 그 방법이 다른 ‘보통’의 여학우들을 더 소외시키는 줄



도 모르고 난 나
만 추켜지니까 그
저 좋았던거다.

그들이 나에게
한 칭찬은 '넌 정
말 보기 드문 여
자야.' 라는 말
이었다. 그 말이
일반 다른 여학우
들을 남성적 고대
문화를 기준으로

함부로 평가하고 비하하면서 결국엔 배
제시키는 것을 합리화하는 말임에도 그
문화에 잘 적응한 소위 남성화되고 심지
어 성폭력적 남성문화까지도 유연하게
넘길 줄 아는 악아빠진 내가 인간적으로
특별하던 건 줄 알고 마냥 좋아했었다.

2학년이 되어 동아리 운영위원회를 맡
게 되었을 때 월례 행사와 주중 행사가
빽빽한 사업와중에서 5명의 동기 중 나
혼자 유일한 여학우였기에 그제야 난 다
소 소외감을 느꼈다. 인간적으로 가장 친
한 동기들이라고 생각했지만 무언가 한
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남자동기 녀석들
은 자기들끼리 상상이 가능한 남성들의
문화로 공통코드를 만드는 동안, 그 속에
서 나 역시도 같이 야한 비디오도 빌려보
는 여학우가 되었지만, 결코 나는 그들
사이에 낄 수 없었다. 그들은 술자리에서
나를 가끔 부르고 '동기사랑'을 외치며
이따금씩 유대감을 확인시킬 뿐이었다.

그랬다. 그들에게 난 다만 '여자동기'였
던 것이다.

그러나 정말 날 깨게 만든 일이 '다행
히' 발생하고 말았다.

7월 방중사업을 위해 동아리 찬조를
뛰게 되었을 때, 난 일부러 침체기에 빠
진 동기 녀석들을 위해 성질사납다는 70
학번을 맡아 연락과 찬조를 담당하며 6
월, 7월을 보냈다. 혼자 후배를 이끌고 부
지런히 뛰어다녔다. 그러던 중 77학번
남자선배들을 만나기 위해 한 남자후배
와 함께 술자리를 갔다. 선배들은 인사를
받고 술을 따라주기 시작했다. 당연히 나
는 내가 남자후배보다 선배이기엔 먼저
술잔을 들고 선배의 술을 받으려했다. 그
러나 그 선배는 대뜸 "어차피 여자애들
은 졸업하면 동아리 오지도 않는데 뭘,
저기, 00학번××야, 먼저 술 받아라."

그 때 그 일은 동아리에서 내 위치와
동아리에서의 여학우들의 위치를 다시
돌아보게 하였다. 그리고보니 동아리 주
소록에서 동아리 내에서 결혼한 선배들
중 언니들의 이름 옆에는 "몇 학번 누구
누구의 부인" 이런 식으로 쓰여있고 주
소도 나오질 않았다. 남자선배에게 연락
하면 다 된다는 듯이. 그리고 그 선배는
선배라기보다는 '형수님'으로 알려져 있
었다. 동아리 96학번 언니들이 회장단으
로 선출되었을 때 고학번들은 과연 여학
우들끼리 제대로 운위를 할 수 있겠는가
로 오버된 걱정을 '해' 주었다. 때론 운

영위원회 임기까지 언니들은 항상 있었
다. 운영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던 언니들. 그네들도 나와 같
았던 것일까? 다만 어느 틈에 가리워지
고 은근히 지원진 언니들도 나와 같은 혼
란이었을까?

갑자기 내가 가졌던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비늘 벗겨지듯 떨어지고 속
살이 드러나면서 모두 허탈스러운 것으
로 생각되기 시작했다. 그 뒤 정말 동아
리에서 내 위치는 무엇인가로 고민하게
되었다.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던져놓은
동아리 속에서 나는 아무런 위치도 없었
다. 한 선배에게 술을 먹다가 "우리 동아
리 남성중심적이예요!" 하고 털어놓았
다. 그러자 남자 선배들은 대거 반발하며
뭐가 그렇게 남성중심이냐고 우리가 '너
네를' 얼마나 생각해 '주는' 지 아냐고 반
발했다.

생각해 '준다'고? 그래, 그런 생각부터
틀렸던 거야.

너네는 우릴 진짜 동아리 구성원으로
서 '생각한' 게 아니라 그저 '생각해준
다'는 태도였어. 그러니까 고작 생각한
게 술자리나 빨리 보내고, 입맛에 맞는
여학우를 주쳐세워 다른 여학우들을 결
국 제풀에 나가게 하고, 너희끼리 선배
만나 단란주점 다녀오고, 이런 문화에 적
응하지 못한 언니들을 동아리 생활 못한
선배라고 계속 이미지를 박는 그 짓을 하
면서 너희는 멋진 귀납적 추리를 하겠지!
여학우들은 아무리 투자해봤자, 도무지
공동체를 생각할 줄 모른다고. 공동체문
화의 아름다움은 단일한 문화를 강요하
는 게 아니라 구성원이 즐거운 문화를 만
들어내는 그 창조성에 있는 것들! 그래,
바로 그 생각해준다는 태도 자체가 너넨
틀린 거야.

생각해 '준다'고?

생각해 '주어왔는' 데 왜 그러냐고?

우릴 정말 '생각해'? ■■■

쪽글

이런 학기부터 올 동아리에서는 정기적인 남학우들의 농구모임에 반합하여 정기적인 여학우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 여학우모임을 두고 끼리끼리 문화가 아냐는 우려를 일부 남학
우들이 제기했지만(그럼 농구할 땐 우리가 너네 시디바라라고 해주라) 동아리 언니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똑같이 소외감을 겪은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해 주는 것과. 그럼으로써 동아리에 새로운
영성과 연대를 가져오는 것. 더 이상 내 사랑하는 후배들이 나나 선배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주체적으로 멋지게 동아리 활동하는 것. 혹은 제 길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이런 모든
공동된 생각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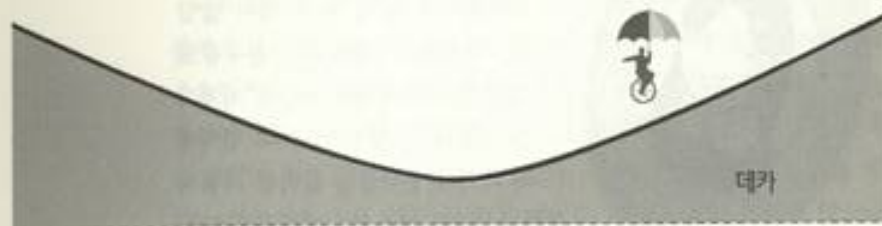
두 마리 토끼?

그녀의 배신?

연애이야기, 너무도 지루한, 너무도 특이한
사랑도 우정도, 문제는 권력!

:: 미워도 다시 한 번

두 마리 토끼?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친구관계 또한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름대로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던 여자친구들과의 대화 중에 나를 빼놓고 만났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순간 너무 속이 상해서 왜 그랬냐고 따졌다. 친구의 대답, "넌 남자친구 있잖아." 굳어지는 내 얼굴을 본 다른 친구가 "미안, 너 요즘 바쁜 것 같아서 안 불렀어"라고 했지만 난 그저 친구들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난 남자친구 만났다고 너희들 안 만난 적 없었잖아.'라고 생각하며 속상해했다. 그 당시엔 몰랐었다. 내가 그녀들을 어떻게 대했었는지.

내가 여자친구들과 보낸 시간들은 남자친구와의 약속 전에 시간이 봉 뒀을 때나 남자친구에게 일이 생겨 만날 수 없을 때였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여자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 남자친구가 만나자는 연락을 하면 난 조심스럽게 일어나도 되겠냐고 물었다. 그럴 때 친구들은 "남자친구가 부르는데... 가 봐야지..."라고 이야기해주었고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내 죄책감은 줄었다. 나중엔 당연히, 그 누구하고 있다가도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오면 당당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이다. 남자친구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가끔 내가 친구들과의



선약 때문에 약속잡기 곤란해하면 "친구들은 다음에 만나도 되잖아"라고 투정부리곤 했었다. 처음 하는 연애했고, 같이 있는 게 마냥 좋았기 때문에 나도 남자친구의 말에 따른 적이 많았다. 처음엔 이해해주던 친구들도 그런 일이 반복되자 조금은 지쳐가는 듯했다. 그렇지만 난 내 연애에 푹 빠져서 친구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그저 속으로 '이해해주겠지'

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주변을 보아도 커플들은 서로에게 독점적으로 시간을 할애했고 '연애란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것이다.

이젠 연애에 푹 빠져있던 시기는 지나고 냉철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연애하기 전에 좋았던 점도 많았다. 연애의 두근거림은 없어도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해주던 친구들과의 수다는 즐거운 일이었다. 사실 남자친구와 지내면서도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 때가 있었다. 서로를 이해한다해도 어느 시점에서 부딪히게 되는 벽. 그러나 여자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편했다. 본능적인 동질감이라고 해야할까? 그런데 나는 그런 소중한 친구들을 연애의 뒤편으로 미뤄두었던 것이다. 친구들도 꾸준히 만나긴 했었다. 그렇지만 만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내가 친구들을 남자친구의 대타처럼 생각했을 때 그녀들은 얼마나 서운했을까. 만나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내 남자친구에 대한 잡다한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했던 친구들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지금 생각해보면 미안하기 그지없다. 그런 친구들에게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친구들이 나를 예전처럼 대해주지 않는다고 불평만 했었다. 이기적이었던 내 모습이 부끄럽다. 내가 내 전부를 주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전부를 줄 리가 없다. 인간관계가 'give and take'라

는 건 좀 식막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아무래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잘 해주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 일방적인 관계는 서로를 지치게 만들기 마련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애인관계와 친구관계는 별개의 것이다. 각자의 관계가 나에게 주는 기쁨은 다른 종류다.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다거나 중요하거나 하지 않다. 지금까지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주변에서 하는 방식이 옳을 거라고만 생각했었다. 다들 연애를 더 중요시하니까 연애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다. 이제는 인간관계에 순위를 매기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다. 애인도 친구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르나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



그녀의 배신?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99년도 2월. 우리는 수련회의 같은 조였다. 어색한 잠깐의 대화만을 나누던 우리는 어느새 같은 동아리에서 서로의 고민을 얘기하는 사이가 되어있었다. 내가 느끼는 것을 이해하고 같이 고민 할 수 있는 관계. 나와 그녀는 친구였다.

그 당시(사실은 거의 항상 그렇지만) 동아리에 가면 가장 많이 듣고 하게 되는 이야기는 당연 '연애'였다. 선배들은 새로 들어온 새내기들을 보면서 그들을 누군가와 연결시키고 싶어했으며, 새내기들은 '연애'를 하고 싶어 들떠 있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새내기들 중에 가장 먼저 연애를 하게되었다.

그녀의 연애 출범 뒤에는 그녀의 사랑앓이를 안타까워하며, 그녀와 그녀가 좋아하는 선배를 연결시키고자 애썼던 동기들의 노고가 있었는데, 우리들은 그녀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기뻐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의 연애 시작 이후였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함께 동아리에서 아주 사라져버린 것이다.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고, 고민을 나누는 대화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나는 나를 배신한 그녀가 참 미웠다. 그렇게 나와 함께 고민을 나누던 친구가 '연애'라는 이름으로 사라져버린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분명 나의 친구였다. 도대체 무

엇이 변한거지? 자신의 남자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할 필요도 없는 선택을 독 부러지게 한 그녀를 난 한참동안이나 미워했었다.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나는 절대 그런 연애를 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그녀를 볼 기회가 가끔은 있었다. 그렇게 가끔 보이는 그녀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워보였던 것은 그녀에게 그늘져 있는 외로움이었다. 그녀는 친구가 없었다. 그녀가 없는 동안 다른 아이들끼리 친해지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친구들도 그녀에게 모종의 배신감을 느끼고 그녀와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매물차게도 그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그 동안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던 나는 인간관계가 유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녀를 냉소했다. 그저 알고 싶어하다니...

그녀의 남자친구가 군대가고, 또 그 이후 둘이 헤어지고, 그렇게 남자친구에게서 벗어나는 범주가 커짐에 따라 그녀는 다시 친구들의 곁으로 서서히 돌아왔다. 물론 그녀는 힘들게 그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그녀는 친구들의 반응에 괴로웠으며 우리는 우리의 반응이 당연함을 역시나 당연하게 설명해주곤 했다.

이 당시를 생각하면 참 무섭다. 한 사람에게 그렇게 배타적으로 굴며 괴롭힐 수 있었다는 것이 무섭다. 더구나 집단적으로. 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나. 인간관계가 주고받음이라고?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나도 주지 않겠다고? 맞는 말이다. 하지만 또한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 켜트니까 나도 너



하나 줄게' 의 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것은 단편적인 관계를 만들뿐이다. 그 친구와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 때는 몰랐었다.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지만 그러고보면 나도 그녀에게 전화 한 통화 한 적 없다. 그녀가 정말로 없어진 것도 아닌데 말이다!

나는 왜 배신감을 느꼈던가. 그녀가 우정을 버렸다고? 남자친구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정을 버렸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우정의 정도만큼 시간을 함께 할 필요는 없으며, 그 시간이 우정의 정도를 증거해 주지 않는다. 나의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그것을 말해주지 않는가. 예전에 여자친구 때문에 동아리에서 잠시 사라졌던 한 남자동기가 떠오른다. 그 녀석은... 여자친구랑 헤어진 뒤에 선배들과 동기들과 잘 지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시 한 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자. 나는 왜 그녀에게 배신감을 느꼈지? 아니, 과연 그것을 느껴야만 했을까? 문제는 그녀와 나 사이에 신뢰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도 그녀만의 책임이 아니다.

지금 그녀는 여러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으며 여자친구들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 하지만 그것이 가끔 애처롭게 보일 때도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친구들을 만나기 보다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의 착각이 없으면 좋겠다.

그녀에게 언젠가 물은 적이 있다. 그 때 왜 그렇게 사라져야만 했냐고. 그녀는 억울한 듯 대답했다.

"나는 정말, 정말로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어. 연애는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다고."

그런 그녀가 사라졌던 것을 과연 배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죄책감을 느낀다. ■■■■

:: 미워도 다시 한번

연애이야기,



너무도 지루한, 너무도 특이한

BESA

1. 재미없어 보이는 연애 이야기

어느 날, 나의 오랜 친구와 나의 남자친구가 함께 만났다. 그 만남 끝에 그 친구는 내가 우리 둘이 '노부부' 같다고 말했다. 담담하고 더 이상 별다른 설렘 같은 것들이 남아 있지 않을 것 같은. 하지만 나의 연애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건 단지 나의 '연애'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기 때문이었다.

나의 연애는 전혀 특이하지 않다. 무척이나 담담하다. 별다른 사건도, 기복도 없이 그렇게 흘러간다. 어찌 보면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는 연애 이야기를 나는 꺼내려 한다. 특이할 것 없는 나의 연애가 어떤 면에서는 특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얼마 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특이함은 내 연애의 특이함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특이함 때문일지도 모른다.



2. 연애를 '질해내고' 싶었다

나는 내 남자친구와 함께 여자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 나갈 때마다 걱정스러웠다. 내가 그녀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편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친구가 나의 남자친구와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까. 그저 물과 기름처럼 겹도는 것은 아닐까. 내가 친구들에게 느꼈

던 아쉬움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다.

나의 친구 하나가 남자친구가 불러낸다고 자리를 접고 일어설 때 나는 마음놓고 그 친구에게 싶은 소리를 할 수 있었다.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애썼으니까. 그리고 그러지 않는 것이 나의 삶에 훨씬 이름 나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사실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내게는 다부진 각오 비슷한 것이 있었다. 연애를 '잘 해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어느 주말 저녁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다며 내게 손을 흔들던 친구, 남자친구를 둘의 약속에 붙속 데리고 나와 나를 당황시키던 친구, 남자친구 생일 뒤로는 연락도 잘 하지 않던 친구, 남자친구의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는 꼬박꼬박 나가면서 남자친구 한번 보여달라는 내 말에는 그저 다음에 라고만 말하던 친구. 그런 친구들에게 느끼던 아쉬움이 새록 새록 떠올라, 그러지 말아야지 다르게 연애해야지 하면서 무척이나 부담을 느꼈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다른 관계들을 의도적으로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사실 그런 노력은 크게 힘들지 않았다. 게다가 그 정도의 노력으로 무척이나 많은 위안들과 즐거움들을 건질 수 있었

다. 남자친구라는 녀석이 입대했을 때 나를 위로해줄 친구도 곁에 있었고, 손 꼭 잡고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친구도 놓치지 않았으며, 이전에는 그다지 친하지 않았던 친구의 새로운 면을 볼 수도 있었다. 동아리 사람들과도 괜찮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새로운 모임에 들어가 무척이나 소중한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었다.

3. 관계를 편인이 얻어두기

언제나 우선순위는 내가 고른다. 나의 남자친구 역시 이런 내게 자신에게 시간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투덜덜 뿐. 하지만 애초에 나는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싶다는 것을 공공연히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선언은 서로에 대한 불성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친밀성과 이에 기반한 관계는 자유로운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런 선언을 하기 직전 내가 읽었던 책은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이었다. 뭐, 아전인수격의 해석이었지만, 적어도 나는 그 글을 읽으면서 내 연애의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문득 이러한 노력이 너무 힘들어졌을 때, 나는 그저 있는 그대로 나의 관계들을 꾸러가기 시작했다. 열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 하는 대신, 그때그때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 그때그때 만나고 싶은 사람들 안에는 나의 남자친구도 포함된다. 그는 나의 관계망 안의 한 사람으로, 나의 선택지들 중 하나로 존재한다. 물론 그 친구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그 친구와 공유하고 싶은 경험 많기에 우선순위의 높은 부분에 그 친구를 놓아둘 때가 많지만, 그것이 그가 '남자친구' 이기에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나의 연애를 '특이'하게 보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다. '연애'하는 상대에게 절대적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나,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그들이 만들어놓은 연애의 공식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연애는 '열정' 적이지 않은 것, 지루한 무엇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나는 다른 이들보다 특별히 지루한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의 연애는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다. 연애 자체가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아니니, 그것이 주는 부담은 거의 없다. 관계가 주는 즐거움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나의 여자친구들과 남자친구가 함께 만나 친해지기도 하고, 알지 못하던 내 친구들의 모습을 남자친구가 내게 일깨워주기도 하면서,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 소통하기도 하면서, 더 풍요로운 관계가 만들어져 가는 것을 느끼는 요즘은, 다른 관계들이 연애를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생각도 든다. 연애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무게를 던져 버리고, 수많은 관계들의 일부로,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친밀성의 영역의 일부로 볼 때, 연애와 여자친구의 관계 맺기는 훨씬 수월한 것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네가 내 제일 좋은 친구 중 하나이길 바란다. 더불어 나도 네게 그랬으면 좋겠다. 가장 인간적인 관계이기를, 늘 바란다." ■■■



::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도 우정도, 문제는 권력!!

나운경(연세대 문화학 협동과정 교수)

95년으로 기억된다. 김건모가 혼신의 힘을 다해 부르던 노래 '잘못된 만남'이 웬만한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연일 일 위를 차지했던 때가. 잘 가꾸어 온 사랑은 물론 오랜 우정까지도 잃어버린 노래 속 주인공 남자는 이렇게 얘기한다. "..... 그 날 이후로 너와 내 친구는 연락도 없고 날 피하는 것 같아 너와 내 친구는 어느새 다정한 연인이 돼 있었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난 울었어. 내 사랑과 우정을 모두 버려야 했기에. 또 다른 내 친구는 내 어쩔 두드리며 잊어버리라 했지만 잊지 못할 것 같아" 속이 상할 대로 상한 그 남자의 기분은 허스키하며 애절한 김건모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작년이었던 것 같다. 홍경민이 여유 있고 절렁한 목소리로 힘들이지 않고 부르던 노래 '흔들린 우정'이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매번 수위를 차지했던 때가. 새로 찾아 온 사랑도 오랜 우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우유부단한 노래 속 주인공 남자는 이렇게 얘기한다. "아나 이제 아난데 왜 난 자꾸만 친구의 여자가 좋을까..... 친구 몰래 걸려 온 그녀의 전화가 난 왜 이리도 설레일까 친구와 그녀가 다뿔다는 얘길 듣고 왜 내가 웃는 걸까" 그리고는 계속 말한다. 뻔뻔하게. "미안해 내

친구야. 잠시 너를 기만했던 걸. 지금까지 너에 대한 내 우정이 아직도 좀 모자란가봐. 이해해줘 내 친구야. 잠시 흔들렸던 우정을. 누군가가 너와 나의 친구사일 질투해 시험했던 거라. 그렇게 생각해 줘” 속이 상할 대로 상한 친구의 기분은 아랑곳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한다.

사랑했던 여인이 자신의 친구를 택했기 때문에 그녀로부터 버림을 받은 남자는 그 둘의 새로운 사랑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눈물짓고,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 이를 부드득 갈고 있는 반면, 선택은 받았으나 그 사랑을 지킬 수 없었던 남자는 친구에 대한 배신을 잠시 잠깐의 실수로 치고 ‘이젠 모든 걸 다 잊고 친구 곁으로 가야겠다. 그러니 너도 이해해 달라’는 가당치 않은 부탁을 한다. ‘우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들이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묘히 머리를 돌리는 사람보다는 솔직하고 답백한 사람을 더 좋아한다. 왜냐하면 비교할 것도 없이 후자의 경우가 더 ‘진실’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나는 김건모의 노래 속에 나오는 남성을, 홍경민의 노래 속에 나오는 남성보다 더 좋아한다. 친구의 곁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밝히고 있는 홍경민

노래 속의 남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선택된 것이 못내 가슴 떨리고 황홀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 남성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아마도 새로 만난 그 여성이 생각보다 덜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그래서 갑자기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하게 됐고 자신이 배신한 우정에 대해 속죄하는 마음을, 치사하게도 ‘누군가가 너와 나의 친구사일 질투해 시험했던 거라 그렇게 생각해 달라’고, 이름도 밝혀지지 않을 ‘누군가’를 끌어다 대가면서까지 표현하고자 한다. 아마 이 남성은 ‘누군가’가 바로 그 여성이었다고 말



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개가 먼저 꼬리를 치는 바람에...’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의 우정에 대한 진실성은 손상되지 않는다. 나름대로는 완전범죄인 셈이다. 그런데 이런 것이 남성의 우정이라면 뭐 그리 대단해서들 ‘싸나이 우정’ 어찌고 저찌고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는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이성적이라고 믿는 심리학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세뇌를 받으며 성장했다. 그러한 텍스트적인 정보들이 우리의 경험과는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다. 남성은 이성적이고 여성은 감성적 (혹은 감정적)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가? 남성들로 우글우글 하니까 이성의 칼날들이 번득이어야 할 국회를 한 번 생각해 보자. 엇갈리는 삿대질, 몸싸움, 질세라 내뿜는 욕설들. 이성이라고고는 손톱만치도 없는 사람들 같다. 또한 살인, 절도, 강간, 폭행 등은 대부분 이성적 집단이라는 남성들에 의해서 저질러진다. 그래도 남성은 여전히 이성적 집단이라는 명예를 꿰차고 있다. 부럽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남성의 우정이 여성의 그것보다 훨씬 ‘편하다’고 세뇌 받으며 성장했다. 이것 역시 우리의 직접적 경험과는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얼마 전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의 퇴임 문제 때문에 언제나처럼 국민들보다는 국가가 시끌시끌한 적이 있었다. 그의 퇴임 문제를 놓고 천생연분인 줄만 알았던 민주당과 자민련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더니만 급기야는 두 당의 공조가 깨졌다. 정치적 윤리와 일반적 상식을 초월한 두 당의 공조를 둘러싼 야단법석과 ‘싸나이들만의 포옹’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지 않고 있는데 1년도 못 돼 쪽박이 난 것이다. 게다가 두 당 공조 때문에 생긴 콩고물을 제일 많이 받아먹은 자민련 소속 국무총리 이한동이 그 자리를 기어이 꿰차고 앉아 있겠다고 하자 그의 오늘을 있게 한 자민련의 대부 JP는 아연질색 말이 없다. 스스로도 유구무언이라 했다. 아무리 정치가들의 사람됨이 거기서 거기라지만 그래도 ‘싸나이들’인데... 별 것 아닌 ‘싸나이들의 우정’을 또 한 번 엿본 것 같다.

여성들간의 우정을 한 번 보자. 남자 친구만 생겼다 하면 정신 못 차

리고 그에게만 매달려 여자 친구들과의 우정은 물론 시간조차 나누려 하지 않는 여성들이 우리 캠퍼스에도 수두룩하다. 남자 친구의 동료와 선배들에게는 '제수씨,' 후배들에게는 '형수님' 소릴 들어가면서 어느새 그들의 '가계'에 편승된다. 그렇게 '가족'처럼 가깝게 지냈건만 남자 친구와 헤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내게 남이 된다. 여자 친구들은 어느새 자기들끼리 더욱 가까워져서 내가 끼어 들 틈이 없다. 난 어디로 가야하나... 이상의 스토리는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여성들끼리 하는 담론의 해묵은 주제이다. 왜 그럴까? 여자는 원래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생겨 먹었나? 물론 아닐 것이다. 이성간 로맨스에서 어떤 사람이 둘 사이의 관계를 결정짓는 권력(power)을 더 많이 갖고 있는가를 따져본다면 의외로 답은 쉽게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성간에 누가 누구를 쫓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정서에 맞는가, 누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하는가, 첫 만남 후 누가 먼저 두 번째 만남의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는가, 데이트 비용은 누가 더 많이 내는가 등등에 대한 답은 이성간 로맨스의 의사 결정자는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고 또한 이 답은 여성이 시간 분배나 교우 관계에 있어서 왜 그렇게 남성에게 종속적인지를 말해 준다고 본다. 그러니 여성들이 이성간의 로맨스를 시작하면서 동성 친구들을 외면한 채로 정신 없이 남성의 기준으로 빠져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가부장적'인 이성간의 로맨스를 인정할 때의 일이다. 그러니 가부장제의 모순을 알고 그 모순을 깨야겠다는 의지로 이성간 로맨스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이 많은 남자친구에 대한 '오피'라는 호칭, 그의 선후배로부터 듣는 제수씨 혹은 형수씨라는 칭호 등을 거부하고 그 거부에 대한 논리 가지기, 데이트 비용 동등하게 부담하기, 자신만의 스케줄과 둘이 만드는 스케줄 구분하기, 이성간 로맨스에 대한 다양한 방식 시험해 보기 (예컨대, 데이트신청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애프터를 먼저 신청해보기도 하고 기다려 보기도 한다 등). 특히, 자신의 생활 중 이성간의 로맨스를 전부가 아닌 일부로 생각한다면 둘의 관계가 권력의 불균형을 이룰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이성간 로맨스를 바라본다면 여성들의 우정이 이성간의 사랑 때문에 손상되지는 않을 것 같다.

높은 시청율을 기록하며 얼마 전 종영된 MBC 월화 드라마 '아름다'는 아줌마로 대변되는 30, 40대 한국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물론,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머리를 쥐어뜯는 여성간의 대립 구조까지 탈피한, 가히 '획기적'인 드라마였다. 극 중 남자 주인공 장진구(강석우 분)는 그의 아내 오상숙(원미경 분)을 배반하고 대학 동기동창 김혜원(심혜진)과 바람이 나, 상숙과 혜원은 전원기간이 되지만 드라마의 끝부분에서는 진구와의 수직적 관계에서 권력을 찾은 상숙이 혜원과 화해하고 두 여자 다 진구를 버림으로써 여성간 우정의 새로운 측면을 보여줬다. 우리가 이 드라마에서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바로 상숙이 권력을 회복하는 순간이다. 그 순간 (드라마에서는 그 순간이 이혼, 즉 가부장제에서 벗어나는 지점이었다)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과 인간 관계를 맺게 된다. 혜원과의 우정을 만드는 것은 물론 어머니와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그녀의 오랜 여자 친구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이 사업을 혜원은 적극 돕는다 (상숙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두 여자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권력의 회복이 인간 관계의 양상을 바꾼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점이었다.

그러니 남성의 우정이 여성의 그것보다 깊고, 항구적이고, 덜 경쟁적이라는 등의 유아적 판단은 그만두고, 이성간 로맨스에서 여성과 남성 그 누가 힘 있는 의사결정자인지를 보고 누가 권력을 회복해야 할 사람 인지를 따져보자. 여학우들이여, 그렇담 이제 자신들이 어디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은가? ■■■



■ 이 글은 2001년 초가을에 쓰여진 글입니다.



물 밖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보이지 않는 끈
커리어우먼 스토리
정신차려, 넌 여자야!
'꿈' 꾸는 소녀
'예외'라는 함정
유리감옥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 물 밖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보이지 않는 끈

전양숙(인문97, 2002졸업)

intro... 그리움

사람이 그림다. 너무나 그림다. 소소한 작은 이야기들을 함께 밤새워 고민할 수 있었던 나의 친구들, 그때가 그림다.

1. 물 밖으로 던져진 물고기처럼

취업을 준비하면서 경쟁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던 시절, 그때 세상이 온통 경쟁으로 피튀기는 싸움터 같아보였다. 실제로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라는 그 전쟁에 뛰어들었던 작년 가을에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 남기 위해 퍼덕거리는 처절한 물고기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었을까, 똑같이 공부하고 놀았던 나의 친구들이 나보다 더 빨리 취업이 되고, 나보다 빨리 성공할까 두려웠었다. 아니 나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왔던 친구들이 나보다 한발 앞서가는 것이 나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다.

같은 값이면 남자를 뽑는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 여성보다는 남성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 속에서 한자리 차지하겠다고 여자들끼리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더욱 초조하게 했었다. 여자라는 사실이 내 발목을 잡는 현실이 싫어서, 그래서 더욱 그 좁은 문에 길게 늘어선 내 여자 동기들, 선후배들이 미웠다. 왜 우리에



게는 이렇게 좁은 문이어야 하는가 하며 함께 개탄하면서도, 나는 몰래 취업원서를 얻고서 친한 친구에게는 말하지 않는 치졸함을 숨기기에 급급했었다. 취업을 함께 준비했던 4명의 친구 중 하나가 우리사이에 놓인 벽을 과감히 허물기 전까지는 말이다.

2. 벽 허물기, 그리고 손잡기

취업시즌이 한창일 때, 나의 친구는 자신이 가진 정보들을 과감히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했다. 똑같은 조건이라는 한계가 어찌면 서로를 경쟁자로 몰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그렇지 않았다. 과잉경쟁에 노출된 이상 서로 나누고 각자에게 맞는 분야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치졸했던 나의 모습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서로 함께한다는 자체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친구에게서 새롭게 배우게 되었다.

취업과 진학이 모두 미진했던 지난 연말, 10명의 친구가 한자리에 모여 밤을 지새웠다. 불투명한 미래와 답답한 현실에서 오는 좌절감을 토로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자는 결론으로 치달고 있었다. 그 중 누군가는 돈 많은 남자를 잡아서 문화센터나 다녔으면 좋겠다는 꾸념을 늘어 놓기도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학원강사로 돈을 벌어야겠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인문학 전공, 그리고 여자라는 우리의 이름이 경쟁사회로 나아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지난 3개월동안 충분히 맛보았을 때였다. 서로의 밑바닥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우리는 많이 우울해 하고 힘들어 했다. 하지만 그 바닥까지 드러낸 순간 우리는 알 수 있었다.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갈 힘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그 밤 이후 누군가는 대학원에 안착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취업을 했고, 다른 두 친구는 다시 대학입시와 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추운 겨울날 밤에 다들 각자 미래에 대한 해답을 찾아냈다. 서로 대단한 결심을 하고 복돌아 준 것은 아니었지만, 단지 다른 공간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만으로 서로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3. 보이지 않는 끈

전쟁 같던 시간이 지나가고 결국 우리는 세상 어딘가에 한자리를 꿰어차는 것에 성공했다.

그러나 세상 밖으로 던져진 기분. 어디 나 혼자 뿐일까.

낮선 공간, 낯선 사람들, 익숙치 않은 언어와 예의, 너무나 다른 문화. 참 이상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할 것이라는 나의 기대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져갔다. 학교 윌타리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낯선 현실적인 논리들이었다. 각박한 이 경쟁들 속에서 또 한번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사실 친구들과 자주 함께하지는 못한다. 지난 대학시절처럼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지는 못한다. 하지만 어디선가 나의 친구들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을 때가 있다.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곳곳하게 잘 지내고 있을 나의 친구들이 자랑스럽다. 말을 구태여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우리.

세상도 다 사람 사는 공간이다. 물론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심각해진다. 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한 가정의 가장이 스무살의 청년과 같은 무게로 살아갈 수는 없다. 다들 그런 짐을 내려놓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경쟁에 더 열을 올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 마음을 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쯤은 나도 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여성의 네트워크를 꿈꾸는 것은 또 하나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이것은 학연, 지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밀고 당기면서 권력을 획득하자는 식의 논리가 우리에게 처음부터 맞지 않는다.

공감하고 교감한다는 것. 같은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그 해답을 서로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여성들의 네트워크가 갖는 힘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각자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드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들끼리의 만남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과도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다.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한다. 누구에게는 쉽겠는가.

지금도 각자의 살터에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나의 친구들을 기억해보자. 그들 역시 나의 오늘을 생각하며 힘을 내고 있을지 모르니 말이다.



커리어우먼 스토리



아리

나 XX.

직장생활 3년차의 직녀다.

요즘 난 아직 물 줄을 때 쓸만한 놈 하나 건져 시집이나 가버릴까 심각하게 고려중이다.

옆 부서 30 넘어 아직도 대리 달고 있는 한대리 언니를 보면서, 나도 이리다 별 볼일 없이 지내다가 앞날도 막막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노처녀로 늙어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무지 시달리고 있다.

처음 (그러니까 사회에 첫 발을 내딛으며 나도 멋지고 당당한 커리어우먼이 되어 독립해서 멋지게 살겠다는 의지와 희망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 회사에서 유일하게 대리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자인 그 한대리를 봤을 때에는, 좀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었다. 사람들이랑 말도 잘 안하고, 어딘가 자신감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다른 남자 동료들은 다들 부장, 차장으로 승진하는데 혼자서 맨날 대리만 달고 있는 걸 보니 능력도 없어 보이고... 저렇 거면 시집이나 가서 후배들 길이나 터줄 것이지, 하는 맘도 들었다.

그런데 요즘의 내가 딱 한대리 같다. 사람들이랑 말도 잘 안하고 하루종일 모니터만 바라보며 내 할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퇴근해 버린다. 사실 사람들이랑 별로 할 말도 없다. 같이 입사한 남자 동기들은 벌써 다들 대리를 달았고, 한 명뿐이던 여자 동기는 작년 가을에 결혼하고 얼마 안돼 직장을 관뒀다. 처음엔 개도 결혼하고도 계속 회사에 다닐 생각이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사사건건 과장한테 꼬투리를 잡

히더니만, 새로 들어온 신입 남자에게 개가 말을 일을 빼앗기고 나서는... 다음날로 때려치웠다.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예쁘다, 일 잘한다 비행기 태우던 남자 선배들은 새로운 신입 여직원들이 들어온 이후엔 내 존재를 아예 잊은 것 같다. 신입 여자애들은 딱 내가 처음 한대리를 봤던 시선으로 나를 본다. 기분이 더러워서, 나도 같이 외면해주고 있다. 속으로 '니들도 그래 봤자 별 수 없어....' 하면서.

그나마 회사에서 제일 친하게 지내는 건 경리 일을 보는 영아다. 밥도 같이 먹고, 업무시간에 몰래 몰래 쪽지도 주고받고, 가끔 쇼핑도 같이하고... 친구처럼 지낸다. 애랑도 처음부터 잘 지낸 건 아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나를 적대시하는 것 같더니, 내가 아직 열혈이던 시절에 개보고 미스 김, 미스 김 하고 부르는 회사 사람들에게 한마디 했더니, 그 다음부터 허물없이 대해준다. 물론... 그럼에도 아직도 영아는 회사에서 미스 김으로 통한다.

아, 그리고 요즘 묘하게 한대리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다. 드러내놓고 친하게 구는 건 아닌데, 뭐랄까... 드러나지 않게 배려를 해준다고나 할까? 한 번은 내가 하지도 않은 실수로 부장한테 엄청 깨지고 있을 때, 다른 바른 용건이 있는 척하면서 은근 슬쩍 위기에서 나를 구해줬다.

지내면서 느낀 건데, 한대리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무능하거나 고립적인 인간은 아니었다. 사실 내가 보기에 일에 있어서 만큼은 완벽에 가깝다. 성격도 조용한 편이기는 한데, 절대 오버하지 않고, 쓸데없이 화내거나 뒤에서 남 욕하지도 않는다. 남자들은 그런 걸 차갑다고 표현하지만, 내게는 깔끔한 성격으로 보인다. 내게 하는 것도 그렇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부하 직원들한테도 잘한다.

하지만 그녀가 더 이상 진급할 가망이 없을 거라는 사실은 나도 알고, 그녀도 알고, 회사 사람 모두가 알고 있다. 그리고 슬프게도, 나 또한 이 회사에서 잘 버티





봤자 그녀가 나간 자리를 대신하는 정도일 뿐이라는 사실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처음에는 그 모든 게 이상하기만 했다.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뭐랄까... 남들은 다 알고 있는 뭔가를 나만 모르는 듯한 느낌.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하루종일 같이 일하는데 나만 왠지 소외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 내가 비사교적인 인간이었나? 성격 나쁘다는 소리는 못 들어 본 것 같은데... 영문도 모른 채 계속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입사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와 내 여자 동기를 제외한 다른 남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끼어들기 힘든 묘한 유대감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대리와 과장이 유독 다정하게 구는 남자 동기가 생겨났다. 늦은 밤 술자리에서, 가끔씩 담배 피러 나가는 사이에,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나는 알지도 못할 찰나들에 그들의 유대감이 만들어지고 굳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회사 안에서 나 홀로 고립된 상태였다. 암묵적인 기대와 도움, 승진에의 약속, 밀어주고 끌어주는 상호작용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그들의 세계에서 나는 그저 이방인이자 뜨내기일 뿐이었다.

작년 초에 남자 동기 하나가 처음으로 대리를 달았다. 잘 나가는 동문 선배한테 부탁해 큰 잔치를 하나 따냈던 녀석이었다. 난 술 취한 선배 뒷치닥거리나 하는 동문회는 안 나간 지 오래됐고, 그나마 연락하는 친구들은 결혼해서 애보기도 바쁜 애들이 거의 다 인데.... 그 뒤로 내 여자 동기는 회사를 떠났고, 나머지 남자 동기들은 차례대로 대리를 달았고, 나는 여기, 아직도 그대로이다. ■■■



:: 물 밖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정신차려, 넌 여자야!”

zoz@ (여성주의 사이트 언니네 운영위원)

“정신차려, 넌 여자야!”

그 날은 나름대로 전도유망한 대기업의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선배와 박사과정을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던 선배, 나이로 따지자면 까마득한 두 남자선배와 술을 마시게 된 날이었다. 어쩌다 내가 그 틈에 끼게 되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다른 특별한 용무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던 중, 어느 틈에 화제는 학업을 일년 정도 남겨두고 있는 내 진로에 관한 이야기로 접어들었다. 졸업한 뒤 무엇을 할 생각이나는 선배들의 질문에 나는 꽤나 순진하고 느슨한 자세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갈림길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같다. 굳은 목표도 없이 고민만을 쌓아두고 있는 후배가 한심했는지 아니면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주고 싶었는지 이런저런 상단을 해주던 그 날의 선배들이 내게 해준 이야기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너, 마음 굳게 먹고 정신차려야 된다. 여자들이 취직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공부해서 교수가 되겠다거나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누나를 봐. 박사 논문만 마치면 졸업이지만, 국내 박사애다 여자를 교수로 뽑아 줄만한 곳이 실은 별로 없대구. 여자라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누나도 고민이 많은 거야. 여자들이 제대로 인정받는 게 아직까지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 잘 알고 있어야 돼!”

그 날, 그 교훈의 내용은 사실 아주 새로운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때까지 내게 직

침묵으로 그런 말을 해주었던 사람이 없었을 뿐더러, 남자 선배들에게서 그것도 가까운 여자선배의 직접적인 예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내게는 꽤나 충격적인 일이었다.



나는 몹시도 허탈했던 그 술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깨달으며 반성을 했다. 그 이전부터 스스로를 여성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실은 그것을 머리에만 집어넣고 있었을 뿐, 실제적인 내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걱정해주던 그 선배들이 아무리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여성으로 살아가는 내게 롤 모델 role model은 되어줄 수 없다는 사실. 그때서야 나는 내가 남자와 똑같다는 착각 속에 살았음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들이 내게 그냥 '선배'가 아니라 '남자' 선배였다는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롤모델을 찾아라

매우 뼈아픈 경험이었고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 날의 '사건'은 그와 동시에 흥분한 기분도 가져다 주었다. 세상이 그런 거였다면, 다른 사람들의 선택과 평가에 굳이 맞춰주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이 내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시간은 내게 다시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재촉하는 것 같았다. 여자로서 부딪히게 될 일들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그래도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부딪히겠다는 결심을 하거나, 아니면 여자가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겠다는 결심을 하거나.

결국 나는 우연히 내게로 온 제안을 기회라 생각하고 덥석 받아들여, 결국 '언니네'라는 여성주의 사이트를 만드는 것으로 내 전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굳이 말하자면 앞서 말한 두 가지의 선택 중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여성주의적 신념을 가진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여성들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자의 전망을 창출하고 서로 나눌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는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경제적인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그 때부터 많은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인터넷, 여성주의, 창업, 서로 다른

각자의 영역이 (아니, 적어도 각자인 듯 보였던 영역들이) 어떻게 하나의 구체적인 줄기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여성주의와 창업이라는, 서로 다른 길을 향해서만 가고 있는 것 같은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전망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자부심과 호기심 이면에는 '롤 모델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결핍감도 함께 했다.

그러나 사실 롤 모델은 없으면서도 있었다. 내 손이 닿을만한 거리에서 기다렸다는 듯 바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롤 모델이 없었을 뿐, 마치 내게 꼭 맞는 맞춤형의 롤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식의 안일함이 없었더라면, 나는 내가 관계맺기를 시작했던 여성들, 경험 면에서 내 선배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내게 조언자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조금 더 빨리 서로간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세상의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 아마도 각자의 영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경력을 쌓았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집단 내에서의 여자가 자기 혼자 뿐이라는, 혹은 나를 지지해줄 수 있을만한 준거집단의 여자 동료들이 없다는, 혹은 내 경험을 실제로 나누어 줄 수 있을만한 후배들이 보이지 않다는 이유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여자들의 실제적인 네트워킹을 위하여

가끔 여자동문회라던가 특정한 목적 하의 여성모임 등, 여성들의 정치적, 혹은 경제적 세력화를 위한 모임에 참석한다. 실질적인 권리와 연대 체계, 세력의 확장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곳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그 모임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 관계에만 민감하거나 친목 모임 정도의 성격으로 만족하고 있는 곳도 많았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가면 이따금씩, 자신들을 어떻게든 이끌어주고 조언해주기를 열망하는 젊은 몇몇의 눈빛과, 현재 삶의 수준을 맞추며 친목만을 유지하려는 (즉, 관계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눈빛, 혹은 모임을 개인적인 세력 확장의 한 방편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어떤 눈빛들이 각각 따로 놀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이런 경우, 더 나은 네트워킹을 바라는 마음에서 아쉬워지는 것은 두 가지이다. 친목 모임의 성격을 갖고 있을 뿐이라면, '좀 더 야심만만해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점. 설령 그것이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현재에 안주하기 위한 것은 아니



여야 할 것이다. 자기 일을 잘 해 온 어떤 여성이라면, 어떤 위치에 있건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권리와 보수를 요구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를 위한 지지집단이 나에게 있는가?

반대로 시급한 정치적인 역할 관계에 민감할 뿐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 자기 혼자 잘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어했던 경험의 고리를 또 다시 끊어버리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서로를 키워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고립될 뿐이라는 말이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바꾸려는 사람이 없으면 바뀌는 것이 없듯, 내가 찾으려들지 않으면 아무도 굳이 내게 와서 이야기하고 도와주지 않는다. 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은연중에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해버리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은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점을 자신이 바꾸어보려고 해야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길을 찾고 있는 주변의 여자 친구들과 만나고, 자신보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여성을 존경하며 좋은 관계를 맺어두기 위해 애쓰고, 여성부의 정책(특히, 멘토-멘티를 이어주는 프로그램 등)이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더욱 실질적이고도 든든한 버팀돌을 하나 보태는 일이다. ■■■

:: 물 밖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꿈’꾸는 소녀

이갈 _ 2gal@dreamwiz.com

무산, 세스, 말고, 하얀, 전광



고양이를 부탁해의 5명의 주인공 중에서 가장 알미운 캐릭터가 해주(이요원)가 아니었을까 싶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주는 뼈까번쩍한 증권회사에서 여직원으로서의 임무에 최선을 다한다. 아침마다 복사물을 알아서 챙겨다 주고 대리들의 잡무를 먼저 해주겠다고 나서고 표정도 최대한 예쁘고 친절하게! 친구들 5명 중에서도 제일 새침하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주는 성공하기 위해서 소위 사회에서 그녀에게 바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다. 보고 있자니 어쩔 저렇게 눈에 들고 싶어 안달이 났을까 싶어서 알람기가 그지 없었다. “저런 애 아우~ 짜증나” 그러다가 문득 해주가 어디선가 많이 본듯한 얼굴이라는 생각이 든다.



‘꿈’꾸는 소녀

혜주를 보고 대학에 갓 들어온 여자새내기를 떠올린다. 그 때는 어서 이방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화 속으로 들어 가야지라는 초조한 마음으로 가득차 있는 시기이다. 게다가 새내기 여학우들에게 보여지는 관심은 특별하다. 어떻게 해서든 과나 동아리에 빨리 적응하고 싶어하는 새내기 시절, 선배들의 문화에 조금이라도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 안달이 났던 새내기 시절, 그래서 적당히 잘 놀고 적당히 애교도 부리며 오빠들의 눈에 들만한 그런 아이가 되어본다. 어디에나 ‘오빠’들에게 어여쁨을 받는 여자새내기들이 생기게 마련이니까. 마치 혜주가 회사에서 방긋거리며 상사들의 눈에 들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것처럼. 그리고 나 역시 이 그림에서 결코 멀지 않은 자리에 있었음을 힘들게 기억해낸다. “저런 애, 아우 짜증나~”

술에 잔뜩 취해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길거리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는 혜주가 무척 안쓰러워 보인다. 기분이 좋아도 나빠도 매일 미소를 띄고 복사기 앞에 서있는 일이 뭐가 그리 좋았을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모습 뒤로 처절함과 외로움이 느껴져 그녀를 미워할 수만은 없다. 그렇게 자신을 죽이고 포장해가며 살아남는 법 이외의 방법을 가르쳐 줄 사람도, 배울 여유도 혜주에게는 없었던 것이다.

다른 여자 동기들이나 여자 선배의 섭섭한 눈빛을 애써 외면한 채 나만은 잘 될 거라, 나만은 예외일 거라 믿었지만, 세상은 나에게 예외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순진하게도 이렇게 승승장구 동아리장이라도 먹을 줄 알았건만 결국 짱의 몫은 ‘언제나 동아리를 지켜 줄 든든한 남자 후배’인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싫은 내색 못하고 앉아 있었던 수많은 역겨운 자리들이 스치고 지나간다. 혜주가 그들의 입맛에 맞기 때문에 적당히 추켜 세워주며 편하게 부려먹고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게 할 어느 여직원일 뿐이었던 것처럼 나도 그런 여자 새내기였던 걸까.

다만 그 오빠들이 원하는 만큼 적당한 경계를 타며 살아남는 것이 사람이 할 것이 못 된다는 것과 그래봐야 내게 돌아올 것은 정해져있다는 깨달음을 조금 일찍 얻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꿈에서 깨어나자. 그리고 이 쌀쌀한 현실에서 정말 내가 손잡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힘들 때 기대어 올라고 어깨를 빌려 줄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자. ■■■



:: 물 밖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예외’라는 함정

조이 여울(여성신문 기자)

“너도 별 수 없어.”

“넌 달라.”

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떤 조직에서 남성들이 여성을 평가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된다. “여자치고 잘 해.” 혹은 “여자 중에 이렇게 능력있는 사람은 처음이야.”

이것은 칭찬일까, 욕일까. 여성의 입장에서 볼때한 말이지만 듣는 당사자의 입장에선 달콤한 얘기일 수 있다. 여성을 동료로 받아들이지 않고 웬만해선 여성의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 속에서 여성들은 ‘별 수 없는 여성’이 아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때문에 남성들은 무시할 수 없을만큼 월등히 실력이 있거나 자신들을 위협할만큼 울곧은 소리를 내는 여성들을 쉽게 ‘예외’라는 범주로 묶어내는 데 성공한다. 그러니까 다른 여성들은 무시해도 ‘넌 예외니까’ 인정해주겠다는 식이다. 마치 백인영화에서 흑인 조연배우 한 명씩 끼워주는 것과 같다.

돌이켜보면 나의 삶에서도 남자들은 나를 ‘예외’라고 부른 적이 꽤 많았다. 아주 어릴 적 제사상 앞에서 남자들만 앞에 나와 절을 하는 광경을 보고 내 마음이 편했을 리 없다. 그러면 큰아버지를 비롯한 어른들은 내게 “여울이 넌 앞에 나와서 절해라” 하셨는데 마치 집안 여자들을 대표해서 나와 절을 할 기회를 주겠다는 식으로 들렸다. 중

학교 때는 남자아이들이 음악이나 영화, 소설, 스포츠에 대한 논쟁을 주도하면서 여학생들을 소외시키기 일쑤였는데 내 눈매가 매서워지면 곧 “다른 여자애들과는 통 대화가 안돼”라며 나를 포섭하려 했다.

그런가하면 대학에 들어와 “넌 이대생 안 같다”라는 말을 수십 번은 들었을 것이다.(물론 대부분 ‘칭찬’이라고 하는 말이다) 한때 돈 벌러 다니면 모 벤처기업에서 실장은 내게 그 고리타분한 말-“여자들 별 수 없지만 당신만은 내 인정하지”-을 무슨 큰 결심이라도 한 양 강조했었다. 요즘도 취재하다보면 “일반 여성들은 이런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하나요?”라거나 “보통 여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내가 공주 기질이 있었다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예외’라는 말은 실은 엄청난 ‘유혹’이기 때문이다. 인정, 혹은 특혜니까. 아니, 더 자세히 말해서 여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의 인정, 혹은 특혜지. 그러나 그런 식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엔 무언가 상당히 찜찜했다. 직감적으로 그 ‘예외’라는 말이 남자들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걸 알았던 것이다. 사실 나쁜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그런 방식으로 여성의 ‘예외’가 되었을 것이다.

‘예외’ 평가는 마치 한 여성을 ‘인정’ 해주고 ‘대우’ 해주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전체 여성을 2등급, 2류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넌 달라”라는 말이나 “너도 별 수 없다”는 말이나 대동소이하다.

여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여성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여성이 아닌 인간으로 정체화시키기를 원한다. ‘여성’이라는 묶음이 아닌 ‘나’라는 개인이 되고자하는 마음은 나 역시 강했다. 그러나 사회는 개인이 되고 싶은 우리를 ‘여성’이라는 묶음으로 묶어놓았다. 언제나 따라다니는 여성이라는 꼬리표, 하루에도 수차례 크고 작은 차별을 겪을 때마다 실감할 수밖에 없는 여성이라는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여성’임을 자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여성을 동료나, 친구, 상사나 후배가 아닌 ‘여성’이라는 2류 인간으로 취급하면서 또 한편으로 끊임없이 ‘넌 예외야’라는 말로 여성들의 정체성을 흔들어놓는 남성들의 함정은 교묘하고도 위험하다. 만약 내가 “그래요? 고마와요”라고 그들의 말에 수긍하고 만족한다면 난 그 함정에 빠짐과 동시에 나를 ‘포함한’ 여성들을 무시하는 행위에도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이다.

다행히 나는 어릴 적부터 건방을 떨었다.(감히 여자가 남자들이 인정해주겠다는데도 안 받아들이다니 얼마나 건방진가) “여율이 넌 앞에 나와서 절해라.” “왜 나만 절을 해요? 큰엄마도 안 하시는데.”/“여자들 별 수 없지만 당신만은 내 인정하지.” “그 별 수 없는 여자가 바로 난데요. 내가 다른 남자들보다 낫지 않아요?”/“야, 여자들이랑은 대화가 안돼. 너만 빼고.” “니가 수준이 낮아서 여자들이랑 대화를 못 하는거야.”/“원래 여자는 끼면 안되는데 넌 봐줄게.” “남자들만 노는 자리 재미없어.”/“이대애들 맘에 안 들지만 넌 이대생 안같다.” “지금 날 무시하는 겁니까?”/“보통 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여자가 누군데요?”라고.

‘예외’가 되라는 남성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 자신을 ‘여성’이라는 정체성과 떼어놓지 않는 것이 결국 스스로를 기만하거나 소외시키지 않는 방법이자 ‘자매애’의 토대로 생각한다.

내 존재가 버겁다고 나를 ‘예외’라는 범주에 둘 생각 하지마. 난 여성이고 한 번도 여성의 ‘예외’였던 적이 없어. 나를 인정해야만 하겠다면 나의 무더기, ‘여성’을 인정하던가 아니면 싸움 뿐이야. 난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싸움을 벌이거든. ■■■





:: 물 밖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회사원 버전의 '자매애'

이대(연세대 인문학부 졸)

한국 사회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집하여 최후까지 살아남을 강력한 3대 조직이 바로 해병대 전우회, 호남 향우회, 고대 동문회라고 한다. 2002년 현재까지도 위용을 떨치고 있는 이 조직들, 이들 보면서 울고 그들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드는 생각은 바로 '여기서 여자들은 열외다.' 라는 점이다. 여기 뿐이겠는가? 나는 여성들이 이 사회 안에서 오로지 그들만을 위해 네트워킹하는 꼴을 별로 본적이 없는 것 같다. 어쩌면 이 사회가 비밀리에 여자들이 둘 이상 모이는 것을 금기시하고 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음모론 비슷한 생각을 품으며 글을 시작해볼까 한다.

회사 관찰 일기

회사에 다니는 나의 여자친구들은 하나같이 무덜거린다. 여자 상사가 혹은 고졸 여사원이 자기를 무지하게 미워하는 것 같다고, 여자 상사가 승진할 시기가 한참 지난 것 같은데 더 이상 승진하지도 않고 자기 앞길을 막는다고, 자기를 회사원이 아니라 어린 여자애로 취급하는 거 같다고, 한편으로는 남자들이 비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상식과는 다른 발언도 서슴치 않는다. 여자들은 잔잔하게 배운 대로 일 처리를 하는 반면에 남자들은 아부하고 허세부리는 술자리 네트워킹의 연장선상에서 업무가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모두들 현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어떻

게 풀어가야 할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함정에 빠지기 쉬우므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를 미워하는 여자 상사'에 대한 진실

유능한 남자들이 다 승진하고 나면, 조직을 살살이 뒤져 무능한 남자들까지 모조리 승진을 시킨 다음에야 특출난 여자한테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 여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간장 종지 만한 밥그릇이란 게 본인에게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언제 쓰일지도 모르는 실력을 갈고 닦으며 기약 없이 대기하고 있으면 한 번 올라 말까한 그런 귀한 밥그릇이라는 거다.

실제로 필요한 '직급 대비 경력'과 '업무 대비 실력'의 잉여분이 나날이 쌓여만 간다면 누구라도 히스테릭해지고, 인사 전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심판관이 되려고 할 것이다. '나는 신입이었을 때 저러지 않았는데, 얼마나 혹독한 과정을 거쳤는데, 저렇게 쉽게 내 자리까지 올라서다니' 류의 시선을 여자 부하직원에게 보내는 여자 상사는 마치 여자의 일생의 한을 며느리에게 양갈음함으로써 풀어보려고 시어머니와 다를 바 없는 비극의 산물인 것이다.

비극의 여왕벌

누구를 탓하랴. 여유로이 내려다보며 반갑지 않은 애정과 코딱지 만한 승진의 기회를 낚싯줄 던지듯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주었다가 뱀기를 반복하며, 고졸 여사원과 대졸 여사원의 불화와, 여자 상사가 자기 손으로 여자 부하직원을 밀어버리는 것 등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을.

이런 것을 여왕벌 현상이라고 하던가? 로얄젤리로 키워지는 여왕벌 후보 유충들은 가장 먼저 깨어나는 벌이 나머지를 물어 죽이고, 몸에서는 다른 벌들의 생식기 발육을 억제시키는 페로몬을 발생시키면서 여왕벌이 된다고 한다. 살아가면서도 본능적으로 다른 여왕벌들을 공격해 죽이며, 주로 수벌을 낳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웬지 이 섬찟한 얘기를 곤충들만의 사정으로 치부하기에는 찔리는 구석이 많다.

남성들에 의해 키워진 상사는 남자 부하들을 키우기 마련이다. '여남 평등'의 주장을 마치 자신들의 세련됨을 홍보하려는 CF 컨셉 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이다. 전시용으로 한 두 명의 여자들은 마치 구원을 받듯이 실제 능력이나 경력과 상관없

이 동용되기도 쉬운 시기이다. 그렇게 한 두 명만을 키우고는 나머지는 죄다 짝을 자른다고 해도, 현상만 두고 볼 때, "거봐라, 니들이 열심히 안하고 실력 없으니 못하는 거지, 여자라고 해도 저렇게 훌륭하게 해내지 않느냐"는 망언은 위력적일 수 있으니 문제다.

그리고 남성들의 안전하고 견고한 권력을 흠모하며, 남성들 안에 유일한 여성의 특권을 만끽하고 자랐다면, 자기가 여왕벌인 동안에는 단 한 마리의 여왕벌 후보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회소성이 자신의 경쟁력이니까. 그런데 만약 그럴 때 이미 짜놓은 각본대로 부하 직원들은 그 상사를 시샘하고 폄하하는 대신, 부하직원이 상사의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주고, 그 자리에 합당한 존경과 예의를 보여준다면 어떨까?

그녀들은 미래의 나, 과거의 나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의 여성들이야말로 동맹이 필요한 관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상사 뒤통수를 까고, 허물없이 쇼핑다니는 친구들은 짧은 시간 안에 잘도 만들면서도 서로를 믿고 키워줄 관계망 형성하기에는 영 서툴러 보인다. 정서적인 부분만을 껴안아주는 '단짝 친구' 만 만들 것이 아니라 서로 비판해주고 지지해주고 키워주는 '동료'가 더 필요한데 말이다.

한 번 생각해보자. 당신에게는 상사로서 존경하고 롤 모델로 삼고 싶은 여성이 있는지. 없다면 나는 한 명이라도 만들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여자부하들의 존경과 인정을 기반으로 서있는 여자 상사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자 상사들은 소수이고, 그들에게 변하라고 요구하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 그 세계 법칙에 몸이 익어버렸다. 난, 부하직원들부터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여자 상사의 권력 기반이 되어주고, 지지해주고, 여자여서 키워지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충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나의 적이 아니라, '미래의 나 자신' 이기 때문이다.

매일의 상쾌한 아침에 이성애적인 컨셉으로 농담 따먹기 하며 호감을 표현하는 남자 상사 열명 보다는 필요 이상으로 갈구하고 일 많이 하는 여자 상사 하나가 더 소중하다. 아무도 여왕벌에게 진짜 왕의 자리를 넘겨줄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단지 대표로 뽑혀서 알을 낳을 암탉이 하나 필요했던 거다. 현실이 그러하니 우리는 여자 상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기 스스로는 성별이 여자라는 것을 의식했던 안 했던, 여자가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훌훌 단신으로 거의 부정에 가까운 노력을 쏟고 나름의 비법들을 연마했다는 뜻

이다. 비법이란 전수하라고 있는 법, 그 노하우들은 비슷한 종류의 억압을 받고 있는 자들끼리 서로 나누고 나눠서 결국에는 상식으로 유통시켜야 할 것이다.

비밀 결사 조직은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여자들이 그들에 관한 그들만의 모임을 만드는 것은 반기지 않는 눈치다. 남자들은 각종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스포츠, 학연, 지연 할 것 없이 편수 만들어 유 유상종하면서, 여자들이 회사에 작은 '여사우회' 하나 만들려면 각종 의혹과 경계의 눈빛을 던지고, 여자들의 모임은 모임대로, 그 모임이 무해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어쨌든 성별이 여자인 회사원들이 동맹해서 할 일이란 자명하다. 밥그릇의 크기를 늘리고 개수를 늘리라고 요구하는 일인 것이다. 성별을 이유로 가해지는 차별에 대한 불만을 다수의 일반적인 비판으로 바꾸어내고, 신입 때부터 고위직에 이르기까지 여자들이 처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에 대한 노하우를 나누고, 누군가 올바른 비판을 가했을 때 그녀가 단독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이다.

가진 자들 간의 끈끈함은 스스로들의 차고 넘치는 이득의 사슬고리로 연결되어 비리를 만들고 불평등의 골을 깊게 하지만, 소수자들간의 네트워킹이란 그 자체로도 사회 운동감이다. 그것은 아직 규명되지 않고 이름 붙여지지 않은 소수자들의 욕망과 현실에 대한 폭로이고, 서로를 돌보고 보호함으로 해내는 권력의 재분배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녀들은 미래의 나이고, 과거의 나이다.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고 과거의 나를 돌보자.

이 글을 쓰면서 나는 내가 서있는 곳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생각들을 실천했는지 돌아봤다. 존경하는 상사들의 얼굴이 몇 명 떠올랐고, 내가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 다시 점검해봤다. 다행이다~

:: 물 밖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유리감옥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평가 alterleft@hotmail.com

악몽같은 이야기

하늘에는 잡으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줄들이 매달려 있다. 여성인 당신은 그 줄을 바라보며 손을 뻗고 발버둥을 친다. 하지만 당신의 머리 위에는 유리로 된 천장¹⁾이 있어 손이 닿지 않는다. 그 뿐인가, 당신의 주위로 수많은 남성들이 자신들끼리 어깨를 걸고 지나가는데 당신은 그들의 흠뻑거리는 시선을 받으며 그들을 부러운 듯 바라보아야 한다. 당신의 몸을 둘러싼 유리벽²⁾이 있기에 당신은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저 바라보는 수밖에 그저 안타까워하는 수밖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벽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 벽은 단단하다. 어쩌면 그 유리가 깨져서 당신은 밖으로 나간다고 해도 너무나 많이 다쳐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꿈을 꾸다면 어떻게. 땀이 흥건한 채 괴로워하며 깨지 않았을까. 악몽이야, 하고 말하며 잊어버리고 싶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그것은 현실이다. 당신이, 사회라는 곳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 당신 앞에 마주하게 될 현실.

1) 유리천장은 1986년 wall street journal 기사가 여성이 (고위) 관리직에 오르는 것을 막고있는 보이지 않는 인위적인 장벽을 가리키기 위해 처음 사용한 말이라고 한다.

2) 유리 천장이 수직적인 아동을 억누르는 장벽이라면 유리벽은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가로막는 장벽, 당신을 고립시키는 장애 요인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 뒤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

자격증을 따고, 토익성적을 올리고, 학점관리를 잘한 당신은 이런 현실이 별로 실감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때때로 찾아오는 불안감에 당황하다가도 이내 마음을 추스리며 내가 열심히 한다면 피할 수 있는 현실일 거라고 가슴을 쓸어 내린다. 취업설명회를 열심히 훑아다니며, 수십 개의 원서를 내며, 이런저런 상담을 받으며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유리천장과 유리벽 속에 가두어질 것이다. 당신은 여성이다.

지금 우리의 삶을 읽어내자

비관적인 전망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대학에서 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외되고 도태되는지를 충분히 보아왔다. 한창 무르익어가는 술자리에서 집에 들어가기 위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쓰여진 '역사'들에 공감할 수 없는 순간 느끼는 작은 소외감, 그 자리에서 나는 이야기들을 모르기에 느끼게 되는 어쩐지 모를 부족함. 해봐야 나에게 커다란 발전의 기회도 없는 자보 쓰기를 비롯한 선전작업을 '꼼꼼한 여학우가 해야지' 한마디에 떠맡을 때 느꼈던 석연치 않음. 내게는 별 관심 없던 선배가 남자 후배들만 데리고 뭔가를 하자고 할 때 느끼는 서운함. 그것들이 그저 감정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는 말해왔다. 대학 안에서 여성들이 소외되는 메커니즘으로 그 상황들을 분석해낼 때 우리는 대학 안에서 우리가 유리천장, 유리벽 안에 갇혀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대학은 단지 4년 남짓한 시간을 머무는 공간이며, 다른 변수들이 존재하기에 그 벽들이 그렇게까지 아프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다. 졸업을 하고 당신이 발을 내디딜 '사회'라는 공간은 더욱 끔찍한 유리감옥이다.

좁은 문 앞에서 두리번거리다 막막해지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감금은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이미 자신들이 매우 좁은 문 앞에서 있음을 알게 된다. 게다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정보를 주는 사람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길을 간 사람이 없는 데서 오는 막막함. 이때 눈을 돌려보면 수많은 우리의 남자동기들이 우리도 알고 있는 선배의 도움을 받아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하고 있다. 취업하고 싶으면 어떤 준비들을 하라고 말해주는 그들은 하지만 내가 따를 수 있는 모델은 아니다. 가뜩이나 좁은 문에, 다른 요구를 받는 여

성들이, 그래도 연대 정도면 취직하기가 어렵지는 않아, 라고 자랑스레 말하는 남자 선배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따를 만한 롤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후의 삶을 훨씬 힘들게 만들어간다. 롤 모델이 존재할 경우에는 너무 쉬운 일들을 처음부터 혼자 하느라 애쓰는 그녀들은 손잡아줄 사람을 찾지만 찾기가 영 쉽지가 않다. 간단하다. '성공한 여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酒本주의 연줄 사회에서 성공하기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일단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게 성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다. 특히 한국처럼 '연줄'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어디 '출신'이라는 것은 이런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다. 그리고, 술자리를 통해 만드는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활용은 그런 '연줄'들을 잔뜩 넓힐 수 있는 방법이다. 누구의 '라인'을 잡느냐가 출세의 기본 요건인 사회에서 많은 연줄을 잡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다. 문제는 이렇게 네트워크를 할 기회 자체가 여성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란주점이나 톨살롱 같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술자리를 중심으로 한 남성 놀이문화는 여성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여긴다. 여성들 역시 그런 공간에 있는 것이 달갑지만은 않은 일이다. 결국 여성들은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이런 자리에서 소외되게 마련이다. 문제는 이런 자리에서 상당한 정보들과 교감들이 오고가고 참석한 남성들로 하여금 이상한 유대감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남성들은 '컨디션'을 챙겨 술자리에 쫓아다닌다. 얼마나 주도적으로 술자리에 참여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고백은 무척이나 의미심장하다. 이런 식으로 술자리에서 엮은 연줄들이 그들이 타고 가는 '라인'을 만들어준다.



'라인'은 그들이 앞으로 타고 올라갈 줄이다. 위로 올라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수평적으로 확장된 네트워크와 더불어 수직적으로 이어진 '라인'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다. 강력한 '라인'을 잡은 남성들은 다른 남성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더 많은 정보와 기회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반면 여성들에게는 이러한 '라인'이 형성되지 않는다. 같은 학교 선배라고 해도 여자 후배를 남자 후배와 동등하게 놓고 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같은 학교 남자 선배를 찾아 인사를 하라는 말을 듣고 갔다가 무척이나 어색하게 자신을 대하고 악수도 청하지 않더라는 웃지 못할 경험담이 그것을 말해준다.

아무도 당신을 키워주지 않는다

여성들을 키우려 하지 않는 분위기는 더욱 큰 문제다.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그저 인맥으로 누구를 밀어준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키우는 사람에게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자신의 모습으로 롤 모델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또한 업무들을 배치함에 있어 힘이 들더라도 책임이 많이 부과되고 그 때문에 잘 해내는 경우 성과가 가시화되는 일들이 키우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여성들에게 부차적인 일들이 주어지거나 '여성의 섬세함'이 필요하다는 감정 노동들을 도맡아 하는 것, 영업 등의 성과가 가시적인 일들에는 배치되지 않는 것, 혹은 더 나은 일을 하기 위한 사내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는 것 등이 그녀들을 '키우지 않는'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여성들을 '동료'로서, 함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대신, 연젠가 결혼하면 떠날 사람, 부차적인 존재로 여기거나 '이성'으로 바라보는 태도들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기껏 키우려 해봐도 여자들은 떠나 버린다는 근거 없는 평가들이 남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항변해봐도 그들이 쌓고 있는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다.



'예외'로 살아남기? 같이 싸우기!!!

현실은 이렇다. 이런 현실을 딛고 여성이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흔히 이야기되는 것은 최대한 잘 적응해나가는 것이다. 남성들이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그들이 나를 '여성'으로 보지 않도록 공식성의 갑옷 안에 나를 밀어넣는 것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쓰던 말투를 버리고 술자리에 열심히 쫓아다니고, 남자들이 하는 것이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쉬운 취급당하지 않는 것. 그렇게 적응하며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적어도 나는 얼마간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할까.

'예외'는 함정이다. 당신이 '예외'로 말해지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손을 잡아주고 당신의 고충에 공감해줄 여자친구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저 사람은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고, 남성 중심적이니 뭐니 해도 안 그런 여자도 있으니 입 닥치고 일어나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거론한다면, 당신의 고충은 한 순간에 무화되고 만다. 그리고 예외 여성들을 생산해냄으로써 남성들은 그들이 소외시키고 배제시킨 여성들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할 것이므로, '예외'가 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여성이기에 가.능.하.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대학에 다니다가 혹시 누군가가 '여자들은 그래서 안 돼'라고 말했을 때 같이 '그 자식 왜 그런다니?' 하면서 공감해본 경험이 있다면, 킥먹거리며 '그렇게 말하는 남자들은 그래서 안 돼'라고 말하면서 옴모를 꾸며본 경험이 있다면, 이제 할 말은 너무도 당연하고 진부하게 느껴질 지도 모르겠다. 여자친구들끼리 손을 잡아보자는 것이 그것이다. 그동안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배제해온 남성 네트워크만이 존재했다면, 이제 그렇게 밀려나고 소외된 채 힘겨운 싸움을 계속 해온 여성

들이 스스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여성'으로서 겪은 차별과 폭력의 경험들을 공감하고 나누면서 그 네트워크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서로에게 공감하고 서로의 눈빛에 스며들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볼 모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 중심적 사회 안에서 여성들이 숨릴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나가는 경험을 하며, '여성이기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여자친구와 함께 했던 이불 속의 밤샘 수다를 기억한다. 별 것 아닌 이야기들이 내 삶의 자양분이 되던 그 순간을, 그 친구의 진지한 모습을 발견하며 나도 답아가고 싶다고 생각한 그 순간, 그녀가 알려준 것들을 내 삶에 써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뜨던 기억, 혹은 변태같던 남자 선생님에 대한 분노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를 기억한다. 그 기억들을 현재의 것으로 만들자. 조금 더 어른스럽게, 이제 좁은 이불 속에서 벗어나 밝은 빛 아래 서 보자. 어쩌면 저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른다. 거기를 향해 손을 내밀 때 당신을 둘러싼 유리감옥이 깨지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17%**



똑똑똑, 들어가도 될까요?

문이 열리고 처음 보는 너의 모습은
 나와 참 많이 닮아 있구나.
 그 닮음이 의아할 정도로.
 아직은 어색하지만,
 난 너에게 그 닮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손을 내밀 거야.
 내 손을 잡아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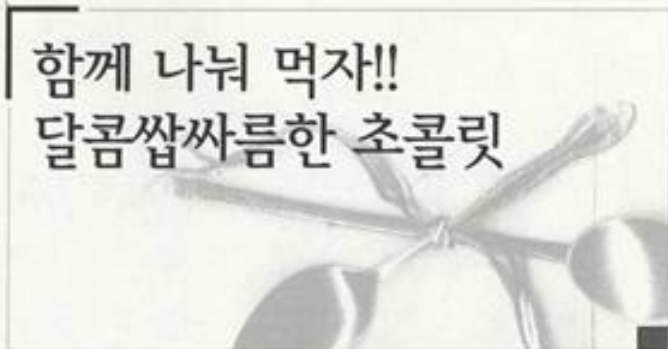
똑똑똑 들어가도 될까요?



II. 똑똑똑, 들어가도 될까요?

함께 나눠 먹자!! 달콤쌉싸름한 초콜릿
 무언가를 하자! 여자친구와 꼭!!!
 나는 아무렇게나 손을 내밀지 않겠다
 페미니스트들의 수줍음, 인색함, 그리고 권력화에 대하여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여성주의자가 싫다고 말한 그녀에게
 내 여자친구는 미운 7살?
 구두 상자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 먹자!! 달콤쌉싸름한 초콜릿



푸름

'자신만의 생각이 담긴 고정 칼럼.'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공간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한 번쯤 귀가 솔깃할 것이다.

처음 '언니네'라는 여성주의 웹진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자기만의 방'을 발견했을 때 나는 '이거다' 싶었다. 어떤 주제로 글을 쓰면 좋을까 고민하다 떠올린 것이 바로 요리. 요리와 미식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나는 내가 만든 요리들을 재미있는 글을 통해 소개하겠다는(전형적인 칼럼니스트 근성..) 생각으로 얼른 '자기만의 방' 신청서를 보냈다. 그리고 며칠 후, '푸름의 달콤쌉싸름한 초콜릿'이라는 방의 주인이 되었다. 오래 전에 영화 '달콤쌉싸름한 초콜릿'을 보고는 현실의 고통을 신비로운 요리를 통해 승화시키는 여주인공의 모습에서 감명을 받아 지은 제목이다.

처음에 내가 이곳에서 쓴 글들은 단순히 자취 생활을 하면서 내가 배운 요리들, 혹은 지나다니면서 본 신기한 음식들에 대한 소개가 주류를 이루었다. 한데 이 과정에서 나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

나는 나의 글을 읽어주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사실 이 때만 해도 나는 여성모임에 발을 들여놓은지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지는 못했었다), 그리고 '여성주의적' 시각을 배제한 채 단순한 요리 안내서로 칼럼을 이끌어 가기에는 무언가 찝찝하고 허전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었다. 깊이가 없었던 탓일까, 아니면 지나치게 '보여주는 글'에 치중한 탓일까... 내가 너무 인기(?)에 연연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나는 한동안 글을 업데이트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방을 버려둔 적도 있었다.

그러다가 언니네가 개편을 한 후로 거의 반 년만에 다시 들어와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제는 <요리나라>라는 어엿한 분류표까지 받아서, 글을 쓰는 스타일도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 단순히 요리들을 소개하는 수준, 즉 '나 이런 요리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나기로 한 것이다. 그 대신에 일상적인 생활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일과, 가장장 사회에서 여성의 일로 인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여성이 배제되는 요리라는 분야에 대한 생각들을 언니네 식구들과 좀 더 공유하고 싶어졌다. 말하자면 껍데기를 벗어버린 거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제 자기만의 방에 상당히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쓰기 시작했고, 남은 음식을 처리하려고 애쓰는 자취생의 비애(?)도 글 속에 담았다. 게시판에는 하나둘씩 사람들이 감상을 남겼고, 점점 '글을 잘 썼다'는 칭찬보다는 '맛있어요, 나도 그랬어요'라는 반응에 더 기쁨을 느끼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무렵부터 다른 사람들의 칼럼도 열심히 읽기 시작했다. 성폭력이나 치유에 관한 조금은 충격적이었던 고백들, 내가 용기 내어 털어놓지 못한 경험들과 너무나 비슷한 일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겪었다는 사실에 한편으로 가슴이 아프면서도 누군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이를 만난 듯한 기분이었다. 대략 이때쯤 추천제가 도입되면서 인기 칼럼과 비인기 칼럼이 확연히 구분되고, 자기만의 방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예전의 오붓한 맛은 다소 적어졌으나 그만큼 자기만의 방
이 열린 공간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점은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어쨌거나 이젠 추천수보다는 얼마만큼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
기를 털어 놓느냐에 더 치중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언니네 사람들과 본격적으로 가까워진 것은 작년 가을에 있었던 월경 페스티벌 때부터였다. 온라인 상으로만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던 사람들과 오프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낯설지 않은 존재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특히 그곳에서는 나와 같은 요리칼럼을 운영하는 나의 의자매와 처음 만났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두 사람인데도, 그녀와 나는 요리를 좋아한다는 것 이외에도 신기하게 닮은 구석이 많았다. 지금도 그 의자매와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전화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믿음직한 동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와 나를 엮어준 공통분모는 여성이라는 것, 그리고 어딘가에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 보고 싶다는 '자기만의 방' 운영자들 모두의 공통분모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프모임을 생각해 냈다. 결정적으로 내 방의 주제가 '요리'이기 때문에 '이런 요리가 있다'는 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언니네 사람들을 불러 요리를 만들어 주고 파티를 한다면 친구들과 더욱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로 약간 급조되기는 했으나 지난해 11월경에 첫 요리번개를 가졌다. 홍보 부족이었던 탓인지 참석률은 불행히도 저조하였으나 나의 요리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 역시 나와 많은 공감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용기를 얻었다. 그 여세를 몰아(?) 겨울에는 나의 의자매의 집에서 본격적인 파티를 하기도 했다.

이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으니 오프를 좀 더 자주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번개를 한 번 할 때마다 최소 서너 명씩 늘어나는 의자매 숫자에 흐뭇함을 느끼면서... 오늘도 나는 친구들이 모여 앉은 따뜻하고 오붓한 식탁을 꿈꾼다. **이영희**

두달은 > 70
뚝뚝뚝, 들어가도 될까요?

내부유사! 유사! 유사!

무언가를 하자!
여자친구와! 꼭!!!

4

人

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 공간시간마다 과방에 가서 반 사람들과 놀고, 선배들에게 붙어 밥 얻어 먹는 그런 평범한 새내기였다. 그리고 5년째 지겹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금, 고학번 여자라면 대부분이 그렇듯이, 공간시간에 할 일이 없어도 과방으로는 발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어렸을 적에는 '왜 이렇게 여자선배들은 과방에 안나오는 거야'라며 원망 반 질타 반의 심정으로 의문을 품었었는데, 나도 역시 과방에 안나가는 여자선배가 되고 말았다. 슬프게도...

대학이라는 공간이 남성중심적이고, 어떠한 공동체에서 나이많은(?)
여자들은 발 들일 곳이 없다는 것. 고학번 남자선배와 그야말로 fresh
한 1학년 여자후배들의 만남이 잘된 그림이라는 것. 아무리 공동체에서
열심히 놀아도, 남녀 가리지 않고 놀아도, 대부분 남자가 다수인 공동
체 속에서 여자들은 결국 배제된다는 것... 아마도 대학물을 몇 년 먹은
사람들이라면 모두들 아는 이야기들일 것이다. 군대를 다녀온 늙스

두산 < 71
무언가를 하자! 여자친구와! 꼭!!!

래 복학생뿐 아니라 직장에 다니는 90년대 초반 학번의 남자선배들까지도 신입생 수련회다 총애티다 오는 이유는 위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엔 어디 얼마나 예쁜 애들이 들어왔나' 자기들끼리 순위매김하고 그 예쁜 아이들에게 좋은 오빠가 되어주려는 속보이는 작전들... 그리고 그 속에서 1년마다 -잘 버티면 2년마다- 로테이션되는 여학우들. 아는 이야기를 다시 곱씹어 글로 옮기니 정말 역겹고 분통이 치미는군.

하지만 나는 이 글에서 이런 X같은 대학의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현실들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들이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나는 사람을 좋아하고 -대학 공기를 5년이나 마신 지금은 가려가며 좋아하지만- 함께 뭔가 하는 것을 좋아하는 지라, 그리고 내가 여전히 애정과 미련이 남아있는 반에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지라, 마지막으로 너무도 다행히 게으른 내 옆에 나와 같은 뜻을 지닌 성실한 나의 동지가 있었던 지라. 반에서 여성주의 학회를 만들어서 활동중이다.

사실 모임이 지속적으로 그리 잘 되었던 것은 아니다. '하자하자' 하며 서로의 의지를 확인한 순간부터 실제로 '하기' 시작한 때까지 정말 긴 텀이 있었고, 시작하고도 주도적으로 모임을 이끌었던 친구의 어학연수로 긴 휴지기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모임을 좀 더 공식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단계에 와있다. 우리 모임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해보자면..

우리 모임은

<<<< 흔히 반의 소모임이 그렇듯이, 매년 뒷물이를 하지도 않고, 술자리를 자주 가지는 것도 아니다. 엠티를 정기적으로 가서 먹고죽자 하는 재미(?)도 없다. 학회소모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재들 모임을 하는거야 마는거야...', '무슨 재미로 저런 걸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있다. 그리고 너무 좋다!!!

<<<< 무엇보다 서로 너무 친하고 편하기 때문에 좋고, 여성으로서 겪는 감정이나 경험의 지반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좋고, 영화나 음악에 대한 취향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영화나 콘서트, 전시 등도 함께 갈 수 있어서 좋고 - 한달 전쯤 이상은 콘서트도 함께 갔었다-, 여성주의에 기반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로 너무 좋다.

<<<< 반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여성의 시선으로 비판하고 대책을 이야기한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반여성적이고 남성중심적 사건(!)들-이를 태면 마초맨 응원가나 축제문화나, 월드컵 신드롬, 성폭력 사건, 쏫한 텔레비전 드라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그럼으로써 각자의 생각들을 조절하거나 확신을 갖고... 그런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과방에 자주 가는 사람들은 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하고 -안타깝지만 많은 경우 저학년 친구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심정적인 기분나쁨을 언어화하고, 과방에 자주 안가는 사람들은 -예상하겠지만 고학년들인데 과방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적 성차별적 사건들을 들으면서 '의식적으로라도 과방에 자주 가야겠다'고 마음을 다지곤 한다.

하지만 이런 모임을 가져나가는 게 쉽지만은 않다. 우선, 많은 여자친구와 함께 했으면 하는데 그게 잘 안된다는 점이다. 기존의 소모임에 비해 재미가 없어보여서 일지도 모르고, (아니길 바라지만)여성주의에 대한 거부감 때문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받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성들은 나이를 들에 따라 더 여성주의자가 된다고 하니 넘 조금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언젠간 우리와 함께 하겠지...^^

그리고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서로에게 강제가 잘 안돼서 모임이 핑크 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새로생긴 모임이라면 많이

겪는 문제들일 것이다. 누군가 한 사람의 에너지로는 모임이 오래 가기는 힘들다. -사실 한 사람만의 의지라면 바람직하지도 않다.- 서로에게 그리고 모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의 어려움이다. 춤을 추러 간다든지, 모여서 영화(비디오)를 본다든지, 에너지를 풀어놓아 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모임의 차원에서든 개인적 차원에서든 지친 친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내공을 쌓는 것....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특별하고 즐거운 모임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出

우리 모임은, 남성중심적 공동체에서 여성들끼리 손잡는 나의 첫번째 경험이었다. 여러 가지를 깨달았고 지금도 깨닫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것을 깨달을 테지만... 여성과 손잡기를 피하는 혹은 앞으로 그래야만 하는 여성들에게, 몇 가지 하고 싶은 말을 적어보자면..

여자후배에게 선배가 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 그리고 '오빠'를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빠 믿다가 발등을 도끼로 찍히는 경험을 당할 수도 있다. 힘들 때 절실하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은 혹은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은 여성일 것이다.

또 하나는 너무 조급해하지는 말되 성실해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뼈저린 경험에서 우러난 이야기다. 뭉든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너무 조급해하거나 안된다고 좌절하지는 말 것.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언젠가는 함께 할 수 있는 동지가 나타날 것이고 결국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 하지만 일단 시작하게 됐다면 정말 성실해야할 것이다. ^^:

권위적인 위계관계의 선후배가 아닌 그야말로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주는 친구가 되는 것, 서로의 상처나 억압을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성숙한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 '풍부한 내적 삶을 공유하는 것, 남성 지배에 맞서 연대를 형성하는 것, 실천적이고 정치적인 지원을 주고 받는 것(페미니즘 2002).'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다.

〈나쁜 남자〉를 보며 예술영화니 뭐니 감동하는 친구들, 〈친구〉를 보며 짠~하다며 '친구야'라고 농담하는 친구들, 여자 연예인의 성관계 물레비디오를 돌려보며 그 연예인을 뒤탈다마 끼는 친구들.. 우리는 이들과 함께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친구를 보면서 싸나이의 우정을 함께 비웃을 수 있는 친구, 나쁜 남자를 보며 '김기덕 진짜 나쁜새이네...' 이라며, 불편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친구(들)가 있다면,

오늘 그 친구(들)에게 손을 한 번 내밀어 보자. ■■■

나는 아무렇게나 손을 내밀지 않겠다



평가 _ alteriet@hotmail.com

1. 그녀 이야기

그녀는 김규향의 '그 페미니즘'이라는 글에 대한 반박글을 쓰고 있었다. 두 시간 동안 찬찬히 그 짧은 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그렇게 글을 쓰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다. 만약 4년 전의 그녀가 이 글을 보았다면 과연 이렇게 흥분하고 있었을까. 어쩌면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는 않았을까.

사실 그녀가 스스로를 '여성'으로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4년 전의 그녀는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누군가 그녀를 '여성'으로 이야기할까 두려워 더 강한 척, '여자답지 않은' 척 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간과 총애했던 때 무척이나 컸던 깃발을 무겁지 않은 척 하면서 들고 다녔다. 깃대를 손에 쥐는 순간, 그녀는 '여학우'라는 거추장스러운 이름을 던져버린 듯 의기양양해졌다. 그녀는 여자 동기 몇몇이 모이는 자리는 재미없어했고, 과방에 어색한 모습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여자선배들에겐 눈길도 주지 않았었다. 여대에 다니는 친구를 만나는 것이 재미있었던 이유는 '여자' 뿐이라 따분하

다'고 말하는 그녀의 지루한 대학생활과 자신의 삶을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리라. 신기한 것은 그녀에게 '여성'의 반대가 '남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그녀에게 그 반대말은 '인간'이었다. 느끼한 배려나 기분 나쁜 무시 대신 온전한 대접을 받으려면 여성이 아니어야 한다는 사실을 무척이나 명민하게 파악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여성을 버린 그녀에게 있어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던 그녀가 지금, 김규향의 '그 페미니즘'에 대한 반박글을 쓰고 있다.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것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 아니다. 철저하게 스스로를 버리고 부정해야만 했던 그 때의 삶이 지금의 그녀를 만든 것일 뿐. 그 철저한 자기 부정의 기억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해준, 그리고 그녀의 일상 전반을 짓누르고 있던 무게에서 해방시켜준 여성주의를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노력하는 마초'를 참을 수 없었던 것뿐이다. 그녀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이다.

2. 여성주의적 성찰

여성주의와의 만남이 나에게 행복한 것만은 물론 아니었다. 나의 일상에서,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수많은 모순, 이윤배반들과 싸우며 나 자신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여성주의가 속 편하게 내가 받았던 억압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이 명백하게 피해자인 순간이 존재하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성 '으로서' 받는 억압들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이 여성 일반을 억압당하는 자, 피해자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이 남성 중심적 대학 문화 속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나 스스로를 '남성화' 시키고 다른 여자 친구들을 '타자화' 시킴으로써 그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여성주의를 접한 뒤에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내가 '나는 여자

지만 대학 안에서 여학우들이 받는 차별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라든가 '여대 애들은 잘 못 뽕친대. 그래서 남녀공학이 더 좋은 거 같아.' 혹은 '여자라도 자기가 하기 나름인 거지' 라고 말할 때 그 말들이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여성주의에 대한 공격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 뒤늦게 알게 되었다. 차별 받으면서도 그렇다고 느끼지 못하는 한편, '여성' 을 차별하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나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던 것이다. 여성주의는 피해자로서의 나를 보듬어주고 에너지를 준 동시에, 가해자였던 내게는 냉정한 비판을 가해주었다. 그것은 다른 여성주의자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나 스스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경험을 읽어낸 결과일 뿐이다. 그 고통스러운, 지난한 과정을 나는 '여성주의적 성찰' 이라고 말한다.

3. 연대는 여성주의적 성찰에 기반해야 한다

이렇게 길게 나의 이야기를 고백하고 '여성주의적 성찰' 이라는 말도 감히 쓴 것은 괜한 우려 때문이다. 여성주의에 대한 오해-나 역시 가지고 있던-때문에 '여자친구와 손잡자' 는 우리의 말이 그저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여성이라는 성별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든 받아주는 블록을 만들자는 말로 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우려가 그것이다. '여자친구들과 손잡기', 좀 거창하게 말해 '여성들의 연대' 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이 단지 여성들에게 보다 나은 지위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스스로의 정체성조차 타인의 시각에 의해 만들어가야만 했던 여성들이 겪던 부당한 억압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신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다.

물론 여성들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억압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쇼핑을 하는 여성과 그 매장을 청소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삶은 다르다. 그런 계급적 차이가 아니더라도, 학벌 때문에, 국적 때문에, 나이 때문에, 성적 지향성 때문에, 그 외의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여성들의 삶이 가지게 되는 억압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된다. 나 역시 그 억압들이 동일하다고 말할 의사는 없다. 오히려, 이 차이들을 뛰어넘어 여성으로서, 남성 중심 사회에서 마주하게 되는 공통된 억압을 통해 연대하고, 그 안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여성주의적 성찰' 에 기반한 연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여성주의가 일상을 정치화하며 구체적인 현실에 발 딛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강점이며, 이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줄 선물이기도 하다.

여성들이 겪게 되는 공통된 억압의 일부로 여기서는 여성들의 '자기 부정' 과 '고립' 을 이야기하고 있다. 남성들이 구축한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고 살아가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남성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원하는 여성이 되거나 혹은 '예외' 가 되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남자 같은 여자' 가 되려 했을 때, 나는 남성들이 바라보는 여성의 이미지의 대립항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고 최대한 남성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그런 노력은 인정받기 위해서였다. 여자라서 못한다는 말을 듣기 싫었던, 여자애들은 원래 저래, 라는 말을 듣기 싫었던 나의 몸부림이었다. 그런 몸부림을 그만 두고, 그러한 나의 방식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주의 그 자체 덕분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나와 나누어주고 나의 변화를 지지해주려 한 여자친구들 덕분이기도 하다. 그녀들은 나의 경험들을 이해해주려 했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를 감싸준 것이 아니라, 내가 있었던 맥락 속에서 나의 행동들을 읽어내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그것은 물론 나에게도 그녀들과 손을 잡을 의지가 있었고, 그녀들 역시 여성들이 받게 되는 억압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손잡고 스스로를 바꾸어 나가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었다.

4. 여자들은 안돼?

나는 여자들은 안돼, 여자들은 원래 그래, 라는 말을 무척이나 많이 듣고 살았다. 그 말들 속에서 여자 친구들과 손잡지 못하는 나를 정당

화했다. 여대에 다니던 친구 하나도 비슷한 말을 했다. 그녀는 그런 말들 속에서 여자친구들에게 손 내밀지 않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여자들은 안 돼'라는 말은 그렇게 재생산되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아직 내가 주위의 여자친구들의 손을 놓치기 전에 여성주의적 성찰을 할 수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 나를 정당화하는 대신, 나의 태도를 바꾸었을 것이다. 여자들은 안 돼, 라는 말이 여성에 의해 만들어진 말이 아님을, 여성들에게는 남은 것들 나누어주기도 아까워하는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말임을, 그리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얻어 먹어보겠다고 달려든 나 때문에 그런 말들이 계속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여성들이 모여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 어쩌면 그 자체가 성찰의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성찰 없는 그녀에 대해 조금은 단호해지고 싶다. 여성주의적 성찰이 없는 그녀가 성찰하는 것을 도와줄 수는 있되,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끌어안을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여성주의적 성찰 없이 여성들의 진정한 연대가 가능하겠는가? 혹은 그 연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성주의적 성찰은 억압의 경험들을 읽어내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으며 서로를 해방시키는 작업이라고 말할 바 있다. 그러한 성찰이 없다면, 여성들이 얻어낸 권력이, 단지 '이탈리아의 딸들'에서와 같은 뒤집기,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음은 자명하지 않겠는가.

여성들의 연대는 단지 '그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의 주류의 자리를 여성이 대신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여성들의 연대는 세상을, 우리가 너무도 당연히 여기고 있던 일상의 억압들을 없애는 일이다. 그리하여 일상적으로 억압을 가하는 폭력적인 세상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했듯 억압의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그 차이에도 주목하는, '여성주의적 성찰'에 기반한 여성들의 연대는, 학연, 지연 등의 공통점만으로, 혹은 생경한 명분으로 뭉치는 지금까지 남성 네트워크의 폭력성을 날날이 드러내며,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것이기에 더욱 소중한 것이다. ■■■

여성주의! 하하하, 하하하!

페미니스트들의 수줍음, 인색함, 그리고 권력화(empowerment)에 대하여.

김 현 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1. 스피박, 정곡을 찌른다.

몇 년 전에 가야트리 스피박이라는 저명한 페미니스트가 한국에 와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스피박의 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이 끝난 후, 한국의 여성학자 몇몇이 그에게 다가가 '당신의 힘있고 성찰적인 언설에 감동을 받았다'는 칭찬을 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스피박은 "왜 그런 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지 않았냐"고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러한 스피박의 지적은 자신의 탁월함을 공적으로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여성과 어떻게 연대하고 여성주의적 영역을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한 것일 게다. 왜 여성들은, 더욱이 페미니스트들조차 다른 여성의 능력과 성취에 대해 '좀 더 공식적인 인정과 지원'을 해주는 일에 대해 수줍어할까? 아니면 이러한 훈련을 받지 못해서인가? 우리는 이 지점에서 페미니스트들을 묶어왔던 '자매'란 의미가 공적인 영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실천되어야하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페미니스트들은 '우리는 모두 한편'이라는 생각 때문에

집안 식구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고 치켜세우는 것에 민망해할 지도 모른다. 또는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막연한 추정 때문에 다른 페미니스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긍정적인 '차이'들에 대해 무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이 정치적으로 친밀한 '자매'가 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정의돼 온 '자매성(sisterhood)'을 끊임없이 수행되어야 할 과제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여성의 적은 여성이다'라는 가부장적 독설이 상식으로 통용되는 세상에서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간의 친밀감과 연대의 정신을 '공적인 영역'에서 수행해내고 실현시켜야 할 다양한 전략들을 알아내야 한다.

2. 세상 속에서 'Out' 되는 우리들의 '스타'들

자신이 페미니스트인가 아닌가를 판단해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위 페미니스트라 불리는 여성들의 말과 행동에 심장이 뛰는 듯한 흥분을 느껴봤는가의 여부일 것이다. 다른 여성을 경쟁과 질투의 대상이 아닌, 단순히 자신의 연애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감정 노동자로서가 아닌, 사회를 변화시켜낼 수 있는 '힘있는 자'로 본다는 것은 간단한 일일 것 같아 보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을 자원과 권력으로부터 배제해왔고, 여성들은 '여성의 자리'란 이름으로 주어진 최소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도록 내몰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종 자리를 차지한 여성은 후배나 동료 여성을 적극적으로 도와 여성의 자리를 확대시키기보다는 '혹시 내 자리를 빼앗아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자신의 타월함만을 부각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가부장제의 이런 논리를 내재화한 여성들은 다른 여성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래봤자, 너도 나와 똑같은 여성이다"라는 논리로 능력 있는 여성들을 폄하시키는데 참여해왔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다른 여성과의 '연대'와 '친밀감'을 기반으로 이러한 문화를 변화시켜내고 여성 혐오적인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제공해왔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의 열악한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일이 곧 나의 삶도 변화시켜 내는 길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보여왔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주의 운동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바로 여성을 배제해왔던 '공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상을 벌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바로 이점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은 단지 가슴으로 '흥분하기보다는' 협상을 벌여나가야 할 '전략적인' 기술들을 배워나가야 한다. 우리가 흔히 '학교'나 '학계'라는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예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 남성학자들이 주류인 '무대'에서



여성주의적 퍼포먼스를 잘 해낸 여성주의 학자들은 막이 내려진 후, 여성들로부터 애정과 찬사를 받게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들은 단순히 '음모론적 쾌락' 이상의 수준을 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들은 무대에서 내려온 그녀에게 '잘했다. 통쾌했다. 남자들 기를 잘 죽여냈다'라는 말로 한껏 그녀의 자아를 부풀려 놓고 금새 사라져 버린다. 그녀는 격려와 지원을 받지만 이러한 지원이 그녀를 좀 더 공식적인 영역의 자원과 권력을 얻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원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인정'을 통한 가시화의 과정이 수반되지 않는 한, 그녀는 늘 몇몇 여성들의 스타로만 남게 되고, 주류 세계에서는 여전히 'out' 되는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 사실, 성별 이슈가 학문 영역에서부터 정치, 경제, 문화 영역까지 하나의 중심적인 아젠다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영역'에서의 협상은 필수적이고, 이러한 '공식성'은 페미니스트들이 다루는 '성별 권력'의 문제가 주류 학문의 중심적인 분석틀이 되어야 한다는 '동의'를 통해 획득된다. 즉 '무대'를 잘 활용하고 다른 여성들의 성취와 업적을 기록화 해내는 일이 중요하다.



3. 여성학 수업에서의 '동일시'의 문제점들

여성학을 가르치는 선생과 여성주의적인 지향을 갖는 학생들은 언뜻 남들이 보기에는 '페미니즘이라는 기호를 운반하는 자와 그를 추종하는 팬클럽'의 관계일 수 있다. 이들은 여남 평등이라는 유토피안 커뮤니티를 꿈꾸며 살고 있는 행동가이자 기존 질서에서 '버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상호 동일시(identification)라는 강력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동일시'가 서로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발전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의 여성학 수업 현장에서 나는 바로 문제를 발견한다. 내가 '문제'라고 정의한 것은 여성학 수업에서조차, 여학생들이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무표정하다는 점이다. 여학생들이 가장 '힘'을 받을 수 있는 여성학 수업에서도 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낼 수 없다는 점에서 나는 선생으로서 무능력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여성주의적 마인드를 가진 학생들이 '공적인 퍼포먼스'를 너무 못하고 있다는 데 불만을 갖게 된다. 나의 이런 불만이 수업 중에 드러나게 되면 여성주의적 마인드를 가진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이메일을 보내거나, 수업이 끝난 후, 자신들의 진정성을 호소한다. "선생님 말에 다 동의하기 때문에 다른 할 말이 없고요"라든가 "선생님 지적하신 게 다 맞아요"라든가, "그래도 선생님을 '뒤에서' 좋아하고 있다"든가 하는 말들이다. 그들은 내가 팬클럽을 창단하고 싶어한다고 오해하는 것 같다. '동일시'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다.

동일시가 어떻게 사적인 친밀성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공적인 방식'으로 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한 예를 들어보겠다.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잘 알고 지내던 페미니스트 심리학 교수님이 있었다. 그녀는 대학에서 꽤나 지명도가 높은 여성학 수업을 개설하고 있었다.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들어오는 대형 강의다 보니, 토론을 진행할 조교도 배당되었지만, 이 수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 수업을 전에 들었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었다. 일종의 수업 도우미(facilitator)라 불리는 이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업 내용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그들은 감동이 느껴질 만큼 열성적이고 진지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여성학 수업에도 큰대형 남학생들도 많고, 지적인 현학성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여성주의 이론의 허술함을 밝혀내고 선생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수업의 많은 시간이 이런 학생들의 집요한 트집과 핵심을 벗어난 질문 등으로 허비될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수업 도우미를 자원한 남녀 학생들은 페미니스트 교수들이 불필요한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또한 선생님의 강의 내용을 쉽게 풀어 동료 학생들에게 다시 설명해줌으로써, 수업의 분위기를 활성화시켜냈다. 나는 수업 도우미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적어도 공적인 현장이라 인식되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공론화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페미니즘을 통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한 사람들조차 '무대 밖'에서 머무르길 원하는 한, 변화되는 것은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



여자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

여성주의자가 싫다고 말한 그녀에게 ...

내 여자친구는 미운 7살? ...

구두 상자에 담긴 이야기 ...



::여자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 여랑

지

난주에 신촌에서 엄청나게 황당한 성폭력을 경험하였다. 술 먹은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나를 끌어안고 같이 가지고 그러는 것이었다. 그 아저씨랑 같이 있던 사람들이 금방 데리고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서 너무 놀래고 불쾌해서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집에 들어왔다. 아무런 사과도 없이 사라진 것 때문에 더 기분이 나빠졌고, 그 당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었던 내가 더 싫어졌던 것이었다. 욕이라도 실컷 해줬어야 했는데... 한동안 생각이 정리 안되어서 해매이다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같은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들과 남자친구들의 반응은 너무도 달랐다. 다들 수밖에 없기도 하다. 비슷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언제고 이런 일이 자신에게도 닥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자 친구들은 나를 많이 위로해줬다. '정말 많이 놀랐겠다... 혹은 그 때 아무 것도 못한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자기라도 그랬을 것 같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남자친구들의 반응은 '신고 안 했냐. 그런 놈은 신고해야 하는 데, 빨리 이사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술은 많이 먹으면 안 된다니까...'

여자 친구나 남자 친구나 다 나를 위해서 한 말들이겠지만 나에게서는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신고 안했냐는 말은 신고하지 못한 나에 대해 추궁하는 것으로 들리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신고는커녕 아무 말도 못한 '나'는 그 친구에게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집에 가다가 그런 일을 겪은 것이니 이사를 가라는 말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대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내가 이사를 가면서까지 피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여성들에게 흔히 가하는 그러게 밤에 왜 돌아다녀! 라는 비난과 별반 다르



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다. 경험이라
는 것이 언제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는 없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특히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 자신이
언제나 있었던 포지션이 어디였는가
에 따라서 이해의 폭과 넓이가 달라
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또 내가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
던 것은 어떠한 '정답'을 원했던 것
은 아니었다. 내가 이 상황과 나의
느낌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전공 수업 뭐 들으면 좋을까와 같은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말이다. 상처받은(?) 나의 상황
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었던 것이었고, 따뜻한 한 마디를 듣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이상하게
도 남자친구들은 언제나 '해답' 그것도 '정답'을 주고 싶어서 안달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럴 때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애한테 이 이야기를 왜했지 하는 생각과 함께 씁쓸하
기만 하다.

여자친구가 있음에 부딪힌 때는 아마도 이런 때인 것 같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한다는
눈빛을 보낼 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피해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받아들여 줄 때, 삭막한 현실이지만 '같이' 있다는 믿음을 줄 때이다. 같은 경험을 하면
서 살고 있다는 것은 - 그것이 좋은 경험이 아니지만, 혹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서로
에게 많은 힘이 되는 것 같다. 내가 하는 고민과 같은 고민을 내 친구도 하고 있다는 것, 내가
받은 피해를 내 친구도 받고 있다는 것, 분명히 남자친구에게서는 느끼기 힘든 독특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같이 힘들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
는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

여성주의자가 싫다고 말한 그녀에게

»»»»»»»» 예진(연대 사회학과 대학원생)

7/2 을 읽을 때나 쓸 때 '자기검열'을 한다는 건 파곤한 일이다. 그러나 언니네 공간에서만
큰 때때로 글을 쓸 때 팽팽해져 있는 신경을 이완시키곤 한다. 특히 자기만의 방에
서만կ은.

하지만 오늘 이 글의 서두를 열기까진 적지 않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다. 아무리 이 공간
이 편하더라도 내가 정작 벌여내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다양한
사건의 묘사를 충실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남아 있는 사람들, 여전
히 해결되지 않은 사건 속의 피해자의 행방 또한 묘연하기 때문이다.

설명과 실제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곳에 내가 글을
남기려는 이유는 뭘까? 난 이 공간에서 그저 폐쇄적인 자기만의 독백을 남기는 텅 빈 울림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분명 지적으로든 무엇으로든 해소되지 않은 욕망을 적당히 글로 휘갈
겨 놓고 일정정도 배설의 쾌감을 느껴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글의 정황이
비록 추상적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맥락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물론, 독자는 독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녀는 활동가이다. 내가 보기에 그녀는 여성주의자다. 하지만 그녀는 여성주의가 아니라고
말한다. 자기 자신을 여성주의자로 표현하기가 싫다고 단호히 말한다.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여성주의의 경계를 하는 대부분의 경우 정의(definition)에 대한 못마땅함, 또는 구별짓기에 대
한 두려움 같은 게 작용하는 거 같은데 그녀의 경우는 좀 남달랐다.

그녀는 여성주의 방식의 싸움이 너무 싫다고 말했다. 그녀는 단호하게 여성주의는 끝이 없는 싸움이라 싫다고 한다. 모시라? 과연 그녀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이었을까? 여성주의 운동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일까? 긴긴 싸움 속에서 상처투성이가 된 모습들이 힘들어 보였다는 것일까? 막말로 계속 썸판으로 내몰리고 있는 게 못마땅하다는 것일까?

속내를 깊이 있게 나누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여성주의 운동을 하나로 뭉뚱그려 설명하려고 애쓰는 모습 또한 자칫 계몽주의적 성격으로 비칠까 얘기는 못했지만 내심 답답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본 그녀는 언제나 싸워왔다. 남성 활동가 사이에서 치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하면서 여성운동가로서 알게 모르게 '구별짓기'를 '당해왔다'. 성적 불평등과 모순, 그리고 다양한 차별을 가로질러 왔다. 그것을 여성주의로 명명하든 아니든, 그러나 번번이 그녀는 여성주의의 이름으로 연대하지는 않았다.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결국' 활동공간 밖으로 떠났다. 그녀가 겪은 일은 여성운동가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너무도 익숙한 분노였다. 그러나 매번 그랬듯이 그녀는 외톨이가 되었다.

그리고 번번이 그랬듯이 문제의 원인은 사건의 밖으로 뺏겨져 나갔고 그녀와 그녀를 둘러싼 '다른' 이야기들만 번지고 번졌다. 문제는 아무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숨어 들어갔고 지친 싸움은 불쾌한 감정의 자국만 남겼다. 그리고 문제의 정황은 어느새 활동가들 사이의 금기가 되었다.

그녀는 지쳤고, 외로워 했다고 한다. 그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고백과 함께 그리고 어떤 누구도 자신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불만과 함께 요연해진 그녀의 행방, 떠난 그 자리에 어떤 누가 어떤 설명으로 무엇을 대신할 수 있을까?

필자의 노파심으로 한 번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맥락과 정황을 삭제하고 단상들로 줄지어진 이 글이 다소 불쾌하고 짜증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치만 말하고 싶었다. 그녀에게 말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답답한 맘에서 원가를 말하고 싶었다. 끝도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그녀들이 얼마나 서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지, 너무나도 작은, 너무나도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는 산을 함께 넘을 때 그녀들과 함께 할 때 얼마나 많은 절벽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지.

적어도 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난 그녀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었



고, 그녀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나의 외로움은 그녀들의 분노였고, 그들이 거부한 상식은 그녀들에게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었기 때문에, 결국 혼자였던 나는 여럿이 되었고, 그 집단의 힘은 어마어마해져 갔다. 단순히 집단 대 집단의 힘이 아니었다. 상대가 철저히 무시했던 역락이 드러나고, 아무리 혼자 애를 써도 무시되던 상황이 반전이 되어 새로운 상황을 만들었다.

아직도 내 뇌리에 깊이 새겨진 그녀의 울림이 있다. 정말 지쳐갈 때 내게 용기 있게 다가와 나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든 그녀의 말은 이것이었다.

"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난 이 상황에서 너를 두고 가버리지는 않겠어."

결국 같이 있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되었고, 그 힘은 결국 또 여럿을 부를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이 힘은 결국 아무도 '잘못된 상황'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그 상황을 '잘못된 상황'으로 불리워지게 만들어 주었다.

그녀가 돌아온다면,

내 경험을 얘기해 주고 싶다.

그리고 그녀에게

여성주의라는 당당하고 멋진 이름을 함께 나누자고 말하고 싶다.

※ 이 글은 여성주의 사이트 언니네(unnine.co.kr)의 '자기만의 방'에 혜진님이 쓰셨던 글을 필자의 동의하에 전재한 것입니다.

내 여자친구는 미운 7살?

»»»»»»»» 이갑

화 장실을 같이 가는 걸로도 모자라 같은 칸에 들어가 서로 뒤돌아서 기다려주던 초등학교 시절, 몰려다니던 친구 중에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다. 친구들 중에 누가 자기네 집에 가서 놀자고 하면 “너네 집에 가면 뭐 주는데?” “그럼 너네 집에 가면?” 이렇게 일일이 재보고는 제일 먹을 게 많고 놀거리가 많아 보이는 집을 골라서 놀러 가는 거다. 제일 많이 건지는 데로 말이다.

이건 7살 때는 가능한 이야기이다. 어린 시절에 내가 다 가지고 싶은 마음, 친구에게서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품어 본 것이 아닌가. 하지만 애교로 봐주는 것도 딱 7살까지만이다.

고등학교 때 한 반에 이런 애가 있었다. 새 물건이 생기면 “우리 백성이 갖다바쳤지”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공주병에 걸린 애였는데, 그 옆에 그림자처럼 줄줄 따라다니며 그 아이를 챙겨주는 비서 같은 친구가 있는 거다. 티비에 자주 나오길래 동화속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고 받으면서도 친구 관계가 가능한 듯 보였다.

글을 읽다보면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참 철도 없다” 싶어 혀를 꼴꼴 차게 된다. 이것이 좀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나의 친구 관계는 이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생전 연락 안 하다가 놀 사람 없거나 밥 먹을 사람 없을 때만 포르로 달려오는 친구. 매일 내가 좋아하는 메뉴만 먹자고 칭얼대던 친구. 만나서 내 이야기는 건성으로 듣다가 자기 고민이나 남자친구 자랑만 3시간 늘어놓는 친구. 매년 친구 생일만 되면 건망증이 발동하여 깜박

하는 친구. 늘 그 친구가 먼저 연락을 해서야 만나게 되는 친구. 바쁘다는 핑계로 답례일이나 답문자도 제대로 안 보내주었던 친구. 그 안에 나는 없는지 나 혹시 바라기만 하는 7살 공주 같은 친구는 아닌지...



어릴 때부터 나는 받는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고등학교 때는 동아리에 꼭 빠져서 수업도 많이 빼먹었고 쉬는

시간이며 야간 자율학습에는 거의 동아리방에서 살았다. 그 때 내게 동아리가 그 무엇보다 우선이었고 그런 태도로는 교실에서 김چه 친구를 사귀는 것은 커녕 ‘따’ 되기 딱 맞았다. 그래도 내 친구들은 아이들이 다 빠져나간, 쓸쓸한 교실에서 나를 기다려 주었고 먼저 편지를 쥐어 주었다. 관계란 언제나 일방적인 화살표로만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그 친구들의 몸짓에 내가 응답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대학에 와서 나는 또 한 번 ‘사랑의 작대기의 상호 법칙’을 깨닫게 된다. 지방에서 올라온 새내기 여학우는 이 곳에서 적응해보고자 애를 쓰고 있었다. 처음 만난 대학 문화는 꽤나 재미난 것이기도 해서 적당히 적응해 가는 것이 무척 즐거웠고 선배들의 ‘신기한 대학 이야기’ 무용담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 때도 내 친구들은 편지로 소식을 전하고 전화를 해왔었다. 그 때마다 듣는 말, “연락 좀 해라. 서울이 그리 좋더냐.” 늘 그렇듯 바쁘다는 핑계와 변명으로 무마하던 나에게 어느 날부터 그녀들이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받기만 하고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이 암채같은 친구가 너무나 섭섭해진 것이다.

정말 인생은 품앗이다.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것도 있는 것이고, 받았으면 또 주는 게 당연하다. 안 그러면 어느 날 필요해서 얼굴을 내밀어보면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황당한 경우를 당할 지도 모른다.

주기만 한다고 해서 나는 다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대화가 일어나야 할 관계에 미구 사랑의 작대기를 보내지만 말고 그 친구도 작대기를 보낼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거다. 주기만

하다가 지쳐 어느 날 슬그머니 자리를 떠버리는 여자친구도 소중한 친구를 잃기는 마찬가지이다. 받기만 하는 친구에게 따끔한 말 한 마디를 해 주는 것, 그래서 그 친구가 정신 차리고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내가 정신 못차리고 신혼을 배회하고 있을 때 그 녀들은 나에게 따끔한 충고를 해주면서 동시에 나를 다시 받아주었다. 이제는 서로가 정신 못차린다는 느낌이 들 때, 그걸 잡아주고 기다려 주는 친구 관계를 만들게 되었지만 그 길을 먼저 보여 주었던 나의 친구들에게 감사한다.

우리 서로 적당히 '친구도리'를 하면서 살자. **17**



구두 상자에 담긴 이야기

~~~~~ 팽

나는 구두를 담아두었던 큼지막한 상자를 가위로 자르고 색지를 붙여서 우리의 시간들을 담기로 했다. 그 친구는 나에게 예쁜 편지지로 편지를 많이 써주었다. 만화책에서 볼 수 있었던 그림이 그려져 있는 편지지 위에 힘주어 쓴 그녀의 글씨는 예뻐다. 오랜만에 만나기라도 하면 우리의 편지지 수는 계속 늘어갔고 언제 채워질까 궁금했던 구두 상자는 그리 보이지 않았다.

나에게는 시간이 다듬어 준 오랜 친구가 있다. 짧은 시간에도 가까워질 수 있지만 시간이라는 녀석은 나와 그녀 사이에 많은 것을 공유하게 해주었고 서로의 비밀 문을 열어볼 수 있는 비밀번호를 선물해주었던 것이다. 물론 그 시간이 언제나 한결 같지는 않았다. 서로의 방향기가 있었고 서로 다른 곳을 보면서 말없이, 시간의 입김 앞에 추위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어떤 교차점을 만들고자 했지만 자꾸만 평행선을 긋기만 했던 오해의 시간도 있었다. 이를테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모든 교3이 지쳐있었을 때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기도 했다. 그녀는 나에게 오해가 있었고 나는 그 오해를 풀기 위해 적극적이지도 않았다. 먼저 손을 내민 그녀를 오랜만에 보았을 때 그녀의 바뀐 안경이 그리 어색하지 않게 느껴졌던 그 때...

고등학교 때는 할일이 어찌나 많았었는지 편지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사실 편지는 약간 부족하다. 내 이마에 난 여드름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그녀가 열심히 눈동자를 굴리며 강아지 얘기를 하는 것도 볼 수 없고 이야기 사이사이에 볼 수 있는 공감의 표시, 고개를 끄덕 고덕하는 것도 느낄 수 없기 때문에-우리는 자율 학습시간에 학교 매점에 숨어 들어가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지금은 별로 기억도 나지 않는 무수한 고민거리와 짝사랑 얘기를 하며

엄청난 수다를 떨었던 것 같다. 그때 자율학습 감독을 하시던 선생님께 들릴까봐 그 넓은 매점에서 불을 꺼둬서 고고 두 여자가 쏘근거리며 짹짹거리는 모습은 지금 생각하면 약간 무섭기도 하다. - 게다가 우리 같은 여자 친구들은 꼭 더 있게 마련이어서 컴컴한 매점에서 서로의 모습에 화들짝 놀라기도 했던 것이다.



당시에 나는 우리가 너무 다른 것을 생각하고 보고 있을까봐 조바심이 나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고 약간의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 해도 그녀와 나는 그리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자주 만나고 있고 대화의 내용이 전과 달라지고 서로가 하는 말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졌음을 의미할 뿐이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전공과 다른 친구들과 다른 꿈을 얘기하지만 그녀와 나는 그 다름에 대해 말을 수 있고 지지해줄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각자의 구두상자 대신에 그녀와 나만의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 커뮤니티를 열면, 그녀가 좋아하는 브래드 피트의 헬복숭이 사진이 나를 당혹스럽게 하기는 하지만 그 옆에 그녀가 쓴 시를 읽으며 나는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한다. 그 곳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때로는 손수건을 내밀기도 하고 때로는 나침반을 내밀어보기도 하며 가슴으로 지지하는 대화를 한다. 그런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 하나가 재료가 되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쁘고 따뜻한 집을 지을 테지.

드르륵~ 갑자기 그녀에게 문자가 온다.

"야, 나 요즘 시체놀이 한다. 술먹자 수물~"

# DATE

여자 친구와의 데이트 코스!

## 여자친구 '와도' 논다? 여자친구 '랑' 논다!!

이갈 \_ 2gal@dreamwiz.com

날씨 좋다고 남들 다 여기저기로 소풍이며 나들이를 떠날 때, 그저 그런 일상이 무료해 질 때, 문득 외로워질 때... 혹은 나의 친구가 그렇게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을 때, 떠나자! 여자친구와 함께!

그럴 때가 있다. 매일 같이 밥도 먹고 수업도 듣는 친구가 있어도 괜스리 외로워지거나 기분이 우울해 질 때 말이다. 마침 그 타이밍에 남자 친구랑 팔짱 끼고 지나가는 여자라도 보이면 "연애하고 싶다"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도 변한다는데, 생각을 바꾸면 내 생활을 못 바꾸라. 이런 좋은 날 남자친구 얼굴만 떠올리지 말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여자친구와 떠나는 거다!

공교롭게 수업이 둘 다 일찍 끝나는 평일 어느 날 은근슬쩍 친구에게 즐거운 표정으로 데이트 신청을 한다. 만약 친구의 수업이 늦게 끝나는 날이라면... 오늘 하루쯤 패라고 고쳐 아꼈지. 친구에게 미리 만든 설레는 초대장을 주어도 좋고 축에서 좋은 날씨 핑계로 친구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어도 좋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같이 보내고, 남자친구랑도 못가는 화장실도 같이 가고, 수많은 쪽지들과 편지들을 교환하면서 데이트라 부를 만한 것들을 나눴던 것 같은데, 여자친구에게 보내는 초대장은 그녀에게도, 나에게도 그간 잊고 있었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해줄 지도 모른다.

가벼운 나들이 코스로 안국동 정도로 가보자. 학교 앞에서 205번을 타고 20분 가량 수다를 떨다보면 안국역에서 내려준다. 여기서 인사동보다는 아트선재센터 가는 한적한 길을 선택한다. 언제나 주머니 조금만 털어도 볼 수 있는 작은 전시회나 영화제가 있는 아트선재센터를 사전 정보 없이 가보는 것도 꽤 재미난 일이다. 그 곳에 도착하기까지 약 10여분 가량 산책을 즐길 수 있으니 어느 것이 목적이 되어도 상관없겠지?

10여분 오붓하게 걸어서 아트선재에 도착하는 직선 코스도 있지만 골목을 따라 고등학교들을 끼고 걸으면서 소사적 생각도 하고 그러다 떡볶이라도 한 점씩 생각하면 죽 늘어선 떡볶이 집 중에 한 군데로 들어가는 거다. 영화 <버스 정류장>에서 김민정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던 떡볶이 집도 그 중에 하나라니 찾아봐도 재밌겠다. 누가 기다리는 이도 없으니 떡볶이 집에서 아예 자리를 잡고 김밥이여 라면에 먹고 배를 두드려도 되고 그 길을 빙빙 돌면서 수다를 떨어도 된다. 60분 짜리 코스나 20분짜리 짜리 코스나 이것도 내가 결정할 뿐!

내 일상과 그녀의 일상이 조금씩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교집합은 바닥을 쿵쿵거리며 생맥주 한 병에 돌이키는 것보다 훨씬 서로를 이해하고 잘 다가서는 방식이다. 적어도 떡볶이 먹었다고 고복 입은 채로 자율학습을 땀땀이 치고, 팔뚝을 낀 채 한껏 거리를 돌아 다녀본 기억이 있는 여자친구들이라면 말이다. 가벼운 전시회 하나, 따뜻한 산책, 적당히 부른 배, 그 시간 동안의 기분 좋은 수다. 이걸로 조금 모자란다면 이번에는 인사동으로 발길을 옮겨보자. 언제나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사지는 않는 골동품들을 오늘도 구경만 하고 손으로 만들었다는 목걸이도 서로 대어보고 그러다가 잠시 경인미술관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 카페와라는 작은 take-out 커피집에서 맛좋은 커피도 한 잔씩 신다. 손을 잡고 술술 사람 구경을 하면서 인사동 골목을 빠져나왔을 때 뽀... 굳이 마음을 털어놓지 않아도 친구는 이미 알아차렸으리라. 힘든 속내를 위로받고 싶어한, 혹은 위로해 주고 싶어한 나의 마음을. 여자 친구와의 우정을 소중하게 만들어 가려는 나의 노력을. 지금 꼭 잡은 이 손을 계속 쥐고 갈 우리의 우정을...

사람은 누구나 시간과 관심을 먹고 자라는 법이다. 가끔 이렇게 친구들과도 데이트를 즐기면서 친밀함을 돈독히 해야 한다. 함께 하는 시간 속에 꽃 피는 우리 우정.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한산한 거리로 데이트를 나서보자! 

## 두입술 죄담 짜잔~

두입술은 '여자친구'라는 주제로 기획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고민을 하고 씨름을 했는지 시계 불림도 없이! 일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긴 시간동안 진행되었던 무수한 이야기와, 지면 관계상 다하지 못한 얘기들을 정리하는 자리가 펼쳐졌다.

### 이번 기획을 평가하자면

**답** ● 기획 전반에는 우리의 여자친구 얘기도 하며 불만도 토로하고 반성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지. 처음에는 일상의 얘기로 시작을 해서 주위 여자친구 얘기를 많이 하면서 불만도 토로하며 반성도 할 수 있었어. 성토투회 같긴 했지만 뜻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 같아.^^ 그러다가 '여성주의적 성찰'이라는 말로 정리가 많이 되었어.

**평가** ● 맞아맞아, 페미니즘과 여자친구들과의 관계가 뭘까 고민하다가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일상과 주의가 연결되지 않은 게 제일 어려웠는데 '생활 속의 성찰'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었으니까.

**이갈** ● 나도 일상을 많이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 음...성찰의 과정 자체가 운동이라고 생각해. 그 성찰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또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거든. 처음에는 나는 나를 돌아보고 나를 내놓는 게 참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두입술은 그걸 말없이 하게 해주었고 그래서 여자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며 동시에 나를 바꾸는 작업이 될 수 있었던 게야.

**평** ● 고덕고덕. 기획을 하면서 여자친구는 누구나 여성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과정에 반드시 지식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도 여성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으니까. 고민만으로도 여성주의를 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한 것 같아.

## 여성주의와 여자친구

**이갈** ● 두입술 사람들끼리는 워낙 여성주의적인 여자친구들이라 힘을 얻고 그래. 그런데 두입술은 참 좋은데, 두입술에서 하는 말과 밖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달라서 좀 힘들었어. 나 스스로 선을 긋는 걸까 싶기도 했고, 그땐 여성주의에 대한 자신이 없었는지도 모르지.

**팡** ● 그런데 꼭 여성주의적인 친구가 아니라고 해도 얘길 하다보면 맞닿는 부분이 있어. 같진 않아도 비슷하게 느끼는 부분. 내가 얘기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 요즘엔 언니들이나 친구들이랑도 굳이 여성주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공감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여성이라는 건 여성주의라는 말과 같다'라는 말은 참 맞는 말이야.

**담** ● 음...우리 여자친구들도 싫은 것 싫게 느끼고 좋은 것 좋게 느끼고...알고 보면 비슷하게 느끼고 있어. 하지만 우리와 다르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남성 중심의 시각이 체화된 거지. 아마도 처음엔 싫었겠지? 그런데 주변에서 그 정도 가볍게 넘길 줄 알아야 멋지다는 분위기가 있는 거지.

**팡가** ● 그래서 여자친구들 이야기가 위험한 면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여자친구들끼리 분명 통하는 것도 많지만 그게 어느 정도 여성주의적 성찰이 없으면 힘들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친구들이 많을수록 남성중심적인 문화가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까다롭다고 생각하게 되고.

## 멋진 여자친구, 여자선배 되기

**이갈** ● 이번에 '취업대란' 할 때 마지막 날 많은 여자친구들이 '언니'의 이야기를 바꿨던 것 같아. 처음에는 취업하는데 뭐가 필요한가 싶어 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여자선배들이 이야기를 잘 물어줬고 여성주의나 여자친구들 사이의 손잡음, 여자친구들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

**팡가** ● 그리고 여성주의자들이 밖에 더 많이 남아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랑 없는 거는 정말 다르거든. 우리 동아리 예들 보면 처음부터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어.

**팡** ● 예현...여성주의를 얘기할 수 있는 여자 선배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그런 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봐. 또 전제를 잘 얘기해주고 스킬을 가지고 있었으면 더욱 좋겠고.

**이갈** ● 그래, 좀 경험 많은 선배들이 가서 치고 받는 것도 해주고 웃으면서 넘겨주기도 하고 화도 내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 조직 안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그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 내 얘기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런 점에서 동기 친구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

**팡가** ●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배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나를 내버려두면서도 힘들 때 은근히 술을 사주던 언니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때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저학번이었을 때도 고학번 선배한테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소리치려고 올 수 있었던 것도 그 언니가 뒤에서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지.

## 여자친구와의 네트워킹

**이갈** ● 내가 총여 일을 하다보니 아무래도 여기저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주의가 정리되기도 했어. 어쩌면 책보다 중요한 건 경험과 돌아봄과 나와 여성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일지도 몰라. 나는 2년 전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변했어.

**팡** ● 이갈처럼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 느끼는 것과 그걸 말로 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기 때문에 언어화하는 것은 중요해. 그래서 여자친구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는 일은 중요한 것 같아. 그치?

**팡가** ● 맞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한 것 같아.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갈 수 있는,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비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여자친구들이 중요한 것 같아. 그걸 지지해줄 수 있는, 두입술 사람들은 적어도 내 얘기를 이해하고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말을 하다 보면 확실히 뭐가 문제였는지 내가 혼란스러운 부분이 뭔지 알게 되는 것 같아.

**이갈** ● 나는 동아리 언니들을 보면서 입지에 관한 생각을 많이 했어. 언니들은 모이기도 잘 모이고 뭉치기도 잘 하는데 입지가 허나도 없는 거야. 그 중에서 몇 명은 임원도 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었다는데 가슴이 아팠어.

**정** ● 그래서 입지에 관한 얘기와 동시에 공적인 영역에서의 네트워킹이 필요한 것 같아. 공적인 영역에서의 네트워킹이라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 그 네트워킹이 일상과 연결되는 지점을 우리의 여자친구들이 잘 이해해주면 좋겠어.

**평가** ● 명함 돌리기가 아니라, 정말 일상에 대한 성찰에서 나오는 네트워킹. 우리가 지금 언니들에게 원했다고 하는 것과 그걸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것. 그 지점이 무지 중요한 것 같아.

**답** ● 여자친구들이 성찰이라는 말의 무게를 알면 좋을 것 같아.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인 수 있는 네트워킹의 기본이고, 사실 여성이 자기에 대한 성찰을 시작하면 그게 여성주의지 굳이 큰 포장할 것도 없이 나는 그냥 자기 자리에서 여성주의가 일어나면 좋겠어. 각자가 다 행복하면 좋겠고 말이지 자기 자리에서 여성주의가 일어나는 것처럼 당연한 일도 없는 것 같아. 이숙경 씨의 책 '담배 피우는 여자'에 이런 말이 있잖아.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내 주변은, 내 일상을 바꾸는 게 전쟁이라고. 그게 바로 여성주의라고.

이렇게 두입술은 또 역시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은 이야기(주제는 무척 다양. 보쌈, 술, 낙지와 같은 먹는 얘기들, 그리고 이갈의 데이트 얘기^^)를 하며 밤을 지새웠다. 두입술에서 오간 많은 논의들과 고민들이, 작은 실천과, 성찰로, 이어 지기를, 고대하면서...

➡ 내가 입을 열어 말한 것들은 나의 두입술 친구들 사이를 돌아 행복의 가능성으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사실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공감되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얼마나 행복한가. 그 동안 말해지지 않았던 '여자 친구' 우리의 이야기들... 이제야 '다시' 발견한 나의 여자 친구들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리고 그녀들이 나를 발견한 것이 기쁘다.  
... 답

➡ 계란은 여러바구니에 나눠 담아야 한다.  
아무렴...

... 데카

➡ 여자친구 기획을 하면서 나는 두입술이라는 든든한 여자친구를 다시 얻었다. 길고 힘겹고 치열했던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었다. 우리의 고민이 그만큼 오롯이 우리에게 돌아온 것 같다. 아주 행복한 밥상으로...

내가 여성주의자로서 첫 발을 내딛은 이 곳에서, 가지치기로 정신없는 나를 언제나 믿어주는(맞지?^^) 여자친구들과 함께라 행복하다. 우리 독자들도 여자친구를 다시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입술과도 친구했으면, 자... 이렇게...^^  
... 이갈

➡ 우리는 많은 말을 했다. 자주 웃었고, 가끔 울었다. 서로의 손을 잡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서로에게 기대어 잡들기도 했다. 그랬다. 무수히 많은 따뜻한 기억들. 이런 기억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함께 바라보고 가는 무엇이 있기에 그 기억들은 더욱 부듯하다. '두입술'에게, 그리고 나를 키워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 이 얼마나 진부한 결말인가. 하지만 칭찬과 감사말고는 하고 싶은 말이 없는, 벽한 새벽이다.  
... 짱가

➡ 우선, 우리 넘 잘했어. 칭찬해주자. 토닥토닥~ 우린 정말 좋은 여자친구야 해해^^ 그냥 내가 알 수 없는 것에 잔뜩 심통이 나 있어서 그 화살을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쏘아 대고 게으름을 피웠던 게지. 음하하  
푸해해, 해해, 푸해해, 해해(웃음으로 때움)  
... 팽

# 두입술

그대 두입술을 열어 함께 말하라 2002. 여름 제6호

- 만드니 : 김정민(신문방송99)  
박세은(인문99)  
박은경(신문방송99)  
이민주(건축학00)  
이지은(기계전자98)  
이정주(신문방송99)
- 펴낸곳 : 두입술 편집위원회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120-749)  
통신ID \_ 두입술(나무누리), twolips(참세상)  
통신방 \_ go twolips (참세상)  
커뮤니티 \_ 두입술(unninet.net)
- 만듦곳 : 일탈기획(2275-8447)
- 발행일 : 2002년 6월 12일
- 후 원 : 연세대학교 제14대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제39대 총학생회 예산 자치채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일탈기획 여러분들과  
인쇄노동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여기! 예요! 여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혼자 간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럼 병이 돈다구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영양제가 될 '두입술'이 '여기' 있어요.

성적, 성격, 정제성, 성적 지향성, 나이, 학년 등등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함께 두입술을 열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자, 이리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당신의 소심함을 벗어날 기회!

>>>> 017-335-3122

>>>> 017-303-9764

>>>> 019-535-9674

그래도 소심한 분들을 위한 기회!

>>>> alterleft@hotmail.com

